这部班到

아시아 평화공동체를 향한 첫 걸음

Pan-Yellow Sea Forum Preparatory Meeting the First Step toward a Prosperous Peace Community of Asia

2015.11.20.(금), 롯데 부여리조트(사비홀)



·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포럼의 주관을 맡은 충남연구원 원장 강현수입니다. 오늘 환황해 포럼을 위해 찾아 와 주신 국내·외 귀빈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이 포럼이 열리는 이 곳 부여는 지금으로부터 1,500여 년 전 황해를 무대로 활발한 해상 활동을 펼쳤던 고대 해양 왕국 백제의 수도였던 곳입니다. 올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이 유서 깊은 역사 도시 부여에서, 황해를 둘러싼 동아시아 지역과 국가의 평화공동체 건설을 주제로 한 환황해 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황해는 동아시아 문명 교류의 중심 통로였습니다. 황해를 통해 불교, 유교 등 동아시아 문명이 전파되었고, 황해를 매개로 환황해 권역 국가와 지역들의 무역과 상호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또한 황해가 갈등의 장소일 때도 있었습니다. 특히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 시대 황해는 전쟁과 분열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선 지금 다시 황해는 평화와 교류의 중심으로 다시 부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서 오늘 환황해 포럼을 개최하는 목적은 황해를 둘러싼 지역과 국가가 이제 더 이상 전쟁과 갈등이 아니라, 평화와 공동 번영을 함께 추구해야 한다는 당위 속에서, 그 구체적인 전략과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입니다.

오늘 이 포럼은 크게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기조라운드테이블에서는 '환황해 시대를 위한 충남의 역할'이라는 주제를, 이어지는 첫 번째 분과에서는 '동아시아 평화공동체의 모색' 이라는 주제를, 두 번째 분과에서는 '환황해 경제와 환경 협력' 이라는 주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이 포럼을 위해 특별히 멀리서 여러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210만 충남도민을 대표하여 의정 활동에 힘쓰시는 김기영 충청남도 의회 의장님 감사합니다. 첫 번째 분과와 두 번째 분과의 좌장을 맡아주신 문정인 연세대학교 교수님, 안충영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기조라운드테이블의 패널을 맡아주시기 위해 멀리서 찾아와 주신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 대사님, 쉬지엔 중국 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님 감사합니다. 첫 번째 분과에서 패널 역할을 해 주실 장샤오밍 북경대학교 교수님, 김준형, 한동대학교 교수님, 두 번째 분과에서 패널을 맡아주신 추이순지 저장대학교 교수님, 유기꼬 후카가와 일본 와세다대학 교수님, 이승훈 세한대학교 총장님, 혀재영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님, 박인성 충남연구원 중국연구 팀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도정을 이끄시고 계시고 오늘 직접 기조라운드테이블 좌장을 맡아주신 안희정 충청남도 지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포럼을 통하여 환황해 시대 충청남도가 나아갈 역할과 방향에 대하여, 그리고 황해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평화공동체의 비전과 과제에 대하여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의 훌륭한 통찰과 현명한 대안이 제안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준비하느라 애써주신 모든 실무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11.

충남연구원장 강 현 수



Opening Address

Good afternoon

I am Hyun-Soo Kang, president of Chungnam Institute, which has organized today's forum. I would like to extend my warm welcome to distinguished guests from Korea and abroad, who are gathered today for the Pan-Yellow Sea Forum.

Buyeo, the host city of today's forum, was the capital of the ancient Baekje Kingdom, which engaged in vigorous maritime activities 1,500 years ago in the Yellow Sea. Having said that, it is meaningful that the Pan-Yellow Sea Forum takes place in Buyeo, which joined the UNESCO World Heritage list earlier this year, to discuss the creation of the East Asian Peace Community for countries and regions surrounding the Yellow Sea.

Historically, the Yellow Sea has played a pivotal role in the exchange of the East Asian civilization. The Yellow Sea served as a channel through which the Eastern Asian civilization and influences such as Buddhism and Confucianism spread to the rest of the world. The Pan-Yellow Sea also facilitated the trade and mutual exchanges between countries and regions around the Yellow Sea.

On the other hand, the Yellow Sea was also the stage of conflicts and clashes. In particular, from the end of the 19th century to the early 20th century, the Yellow Sea was plagued by wars and divisions. However, the Yellow Sea has emerged as a center for peace and exchange since the early 21st century.

Today, the Pan-Yellow Sea Forum is being held in Chungnam, as part of efforts to find concrete strategies and measures to realize the vision that countries in the Yellow Sea region should leave behind conflicts and wars and move toward peace and mutual prosperity.

Today's forum features three topics, staring from the Plenary Round Table on "The Roles of Chungnam for the Era of Pan-Yellow Sea". It will be followed by the first session on "Seeking out 'Peace Community in East Asia" and the second session on "Pan-Yellow Sea Economic and Environmental Cooperation".

This year, the forum has brought together many experts from all around the world. On behalf of 2.1 million Chungnam people, I would like to extend my gratitude to Kiyoung Kim, Chairman of the Chungcheongnamdo Council, for his hard works in the political area. I would like to extend may appreciation to Chung-in Moon, professor of Yonsei University, and Choong-Yong Ahn, chairman of the National Commission for Corporate Partnership, who will preside over the first and second sessions. I also pay respects to Kathleen Stephens, former U.S. Ambassador to the Republic of Korea, and Xu Jian, Senior Research Fellow at the China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who have travelled a long way to participate in the Plenary Round Table. I would like to extend gratitude to Zhang Xiaoming, professor of Peking University, and Joon-Hyung Kim, professor of Handong University, for their contribution to the first session as panel member, and Cui Shunji, professor of Zhejiang University, Yukiko Fukagawa, professor of Waseda University, Sung Hoon Lee, president of Sehan University, Jaeyoung Huh, Chairman, Policy Advisory Committee of Chungcheongnamdo, and Insung Park, head of China Studies at the Chungnam Institute, for their participation in the second session. In addition, I extend special thanks to Heejung Ahn, governor of Chungnam Province, who will preside over the Plenary Round Table and has exerted leadership in guiding Chungnam towards a successful future.

I hope today's forum will serve as a platform, which facilitates the exchange of deep insight and wise alternatives to define Chungnam's the role and future direction in the era of the Pan Yellow Sea and identify the vision and challenges that the East Asian Peace Community faces in the Yellow Sea region. Last but not least, I would like to thank all the staff for their hard work and dedication for making this forum happen.

Thank you.

November 2015

Hyun-Soo Kang President of Chungnam Institute

환영사

환황해 포럼에 참가하신 국내외 귀빈 여러분!

유구한 역사와 평화의 고장 충청남도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환황해 지역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평화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우리는 지난 13일 전 세계를 분노와 슬픔에 빠뜨린 프랑스 파리의 연쇄 테러를 상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30여명의 무고한 민간인들이 광신적인 테러집단에 의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테러는 평화와 민주주의를 향한 프랑스인과 세계인의 의지를 결코 굴복시키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위해 연대할 것이며 모든 종류의 폭력에 함께 맞설 것입니다. 테러 희생자와 그 가족 그리고 프랑스 국민들에게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테러를 보며 저는 다시 한 번 평화의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번영과 자유는 오직 평화 속에서 가능합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논의할 환황해 지역의 평화는 어떻습니까? 과연 10년이고 100년이고 평화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아직 환황해 지역은 견고한 평화 체제를 만들어 내지 못했습니다. 환황해 지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또 한편 가장 강력한 군사력이 집결해 있는 곳입니다. 작은 충격에도 언제든 평화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이 끊임없이 대결하고 무력 충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로 이미 신경전을 주고받은 중국과 미국의 군사적 긴장도 점차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겠습니까? 지난 세기 전쟁으로 얼룩진 이 지역의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합니까?

친애하는 아시아 그리고 세계 시민 여러분!

저는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기념 연설을 통해 '아시아 평화 공동체'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다시는 20세기 침략과 전쟁의 불행한 역사를 아시아에서 되풀이하지 말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제안합니다. 저는 한국인이든 중국인이든 일본인이든 모두가 하나의 아시아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돈과 상품이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드는 하나의 시장, 긴밀한 외교적·군사적 협력을 바탕으로 모든 아시아인의 생명과 존엄이 지켜지는 항구적인 평화가 환황해 지역에 뿌리내리길 바랍니다. 유럽은 이미 반세기 전부터 이 과업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전쟁을 반복했던 프랑스와 독일은 한 지붕 아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제 EU 국가 간의 무력 충돌은 상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시아도 변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는 수 천 년의 역사를 통해 유럽 못지않은 역사적, 문화적 자산을 나눠 가졌습니다. 지난 20세기 제국주의와 식민지배의 시대는 수 천 년의 공동번영과 교류의 역사에 비하면 한 순간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지난 세기 반목의 역사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쉬운 것부터 시작해 신뢰를 쌓아 갑시다. 오늘 논의할 경제와 환경, 생태 분야부터 협력을 시작합시다. 이 주제들은 국가 간 외교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지방 자치단체 간에, 시민 사회 간에 협력할 수 있는 공통의 관심 사항입니다. 지자체간 교류나 포럼과 같은 실질적이고 다원화된 만남을 통해 협력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협력의 수위를 점차 높이고 평화를 지킬 제도를 만들어가며 한 발씩 전진합시다. 아시아 시민 모두의 삶의 터전인 황해가 아시아의 지중해가 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시아의 평화를 열망하는 모든 국가에게 제안합니다.

한·중·일 3국은 이미 수 천 년 동안 서로 의지하며 발전해왔습니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린 순망치한(脣亡齒寒)의 관계입니다. 이들이 '아시아 평화 공동체'의 비전을 공유한다면 더욱 굳건한 평화와 번영의 토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낡은 20세기 대결의 질서를 종식시켜야 합니다. 더 이상 패권주의나 국수주의가 이 지역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21세기 평화와 공동 번영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국경을 넘고 민족을 넘어 손을 맞잡아야 합니다. 이미 시민사회와 기업들은 발 빠르게 이 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와 정부 부문의 분발과 노력만 있으면 됩니다.

대한민국에게 '아시아 평화 공동체'는 통일을 향한 열쇠이기도 합니다. 독일과 마찬가지로 주변국들의 신뢰와 동의 없이 한반도의 통일은 요원합니다. '아시아 평화 공동체'의 우산 아래에서 주변국들에게 한반도 통일이 역내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확신을 줄 때 통일은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아시아 평화 공동체'는 중국과 가장 가깝고 일본과 깊은 역사적 유대 관계를 맺고 있는 충청남도에게 새로운 기회와 경제적 번영을 가져다 줄 약속입니다. 하나의 시장, 더 빈번한 교류, 그리고 안정된 평화 질서 속에 충청남도는 동북아 교류의 허브였던 백제의 영광을 재연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충청남도는 '아시아 평화 공동체'의 꿈을 향해 작은 밀알이 되겠습니다. 비전을 다듬고 의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이 씨앗은 이미 100여 년 전 대한민국의 독립 영웅 안중근 의사가 뿌린 것입니다. 사형을 앞둔 약소국의 청년이 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를 염원하며 '동양평화론'을 만들었습니다. 한·중·일의 상설 회의체, 공동은행, 공동평화군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유럽연합에 무려 80년이나 앞선 혁명적 주장입니다. '동양평화론'은 제국주의 시대에 완성하기 어려웠던 주제입니다. 하지만 21세기, 우리는 이 미완의 꿈을 완성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충청남도가 앞장서겠습니다. 바로 이 '환황해 포럼'에서 아시아와 세계시민들과 함께 '아시아 평화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친애하는 아시아 시민 여러분!

중국의 고사에 해불양수(海不讓水) 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다는 어떤 물도 사양하지 않고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황해는 그 너른 품으로 아시아인들의 번영과 전쟁의 역사를 모두 품고 있습니다. 1400 여 년 전 동북아 고대 왕국들은 황해를 통해 교류하고 협력하며 번영을 누렸습니다. 앞선 선진 문물이 황해를 건너 전해지고, 승고한 종교와 학문이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지난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고대 국가 백제의 역사 유적이 동북아 3국의 평화적 교류와 번영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9세기 말과 20세기, 황해에서는 제국주의 침략과 패권 경쟁, 그리고 동족상잔이 이어졌습니다. 제국주의 침략 전쟁이었던 신미양요와 병인양요 그리고 운양호 사건. 동북아 패권을 두고 중국과 일본이 겨뤘던 청일전쟁. 동족 간에 피를 흘린 6.25와 지금까지 반복되는 남북간의 해전까지, 지난 100년 동안 황해는 슬픔과 고통의 바다였습니다. 이제 다시 황해를 어머니 품과 같은 공존과 평화의 바다로 만들어 갑시다. 21세기 '아시아 평화 공동체'의 비전으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갑시다. 이 포럼에 참석하신 아시아와 세계 시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2015년 11월 20일 충청남도지사

Welcoming Address

Distinguished guests for the Pan-Yellow Sea Forum!

I sincerely welcome you to Chungnam Province, known for its historical value and peaceful atmosphere.

Today we are gathered here to discuss peace and mutual prosperity in the Pan-Yellow Sea area. I am pleased and grateful to join you today for this meeting today.

Before talking about peace, we cannot but to think of the series of terrorist attacks in Paris, France on November 13th, which the world has witnessed with profound sorrow and indignation.

Around 130 innocent civilians lost their lives to the acts of fanatic terrorists. However, terrorism has not, and will not, undermine the commitment that the people of France and the world show for peace and democracy.

We will stand united in the pursuit of peace and stand against all forms of violence. My heart goes to the victims, the injured, their loved ones and the people of France.

The recent tragedy reminds us of the paramount importance of peace. Peace is the only way that leads us to prosperity and freedom. We should do whatever it takes to preserve peace.

Let us turn to the Pan-Yellow Sea area, which is today's topic. Would it be possible to keep the peace for the next decades and centuries in the area? Unfortunately, the Pan-Yellow Sea area has yet to establish a solid framework for peace.

The Pan-Yellow Sea area is one of the most dynamically developing but also the most heavily armed parts of the world. A small shock to the system may unravel the peace in the area.

For instance,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re in constant conflict and bloody clashes. Military tensions between China and the US continue to escalate over the deployment of the THAAD missile-defense system.

Now is time to ask: Do we choose to work together? If the answer is yes, what efforts should we make to keep the tragic history of the past century from repeating itself?

Dear Citizens of Asia and the World!

In my speech on the occasion of the National Liberation Day on August 15th, I made a proposal for the creation of the Asian Peace Community. I proposed that we should prevent the tragic history of wars and invasions in the 20th century from taking place in Asia.

Let me take this opportunity to reiterate the proposal. I hope that all Asians – especially Koreans, Chinese and Japanese, to stand united as members of Asia. I hope the Pan-Yellow Sea will be a single market, which ensures free flow of capital and goods, and eternal peace with respect for the lives and dignity of all Asians through close diplomatic and military cooperation.

In this regard, Europe is a half century ahead of Asia. France and Germany have been brought together, leaving the history of wars and conflicts behind. Armed conflicts between any EU member states are unthinkable.

I believe such changes can take place in Asia. Over thousands of years, countries in Asia have developed shared history and cultural heritage as those in Europe have. The 20th century, torn by imperialism and colonialism, is only a momentary diversion from the countless years where Asia has prospered together through mutual exchanges. I am confident that Asia can move beyond the history of grievances and mistrust.

Let us start from the basics to build trust. Having said that, I believe economy, environment and ecology, which are today's subjects, can be a good starting point. Despite diplomatic differences at the national level, these areas of mutual interests can bring together local authorities and civil societies. The exchanges and forums enable local governments to meet each other in a substantial and diverse way, consolidating cross-border partnerships. Then, we can take this to a higher level and move towards creating a rock-solid framework for peace. The Yellow Sea, home to people of Asia, can emerge as Asia's answer to the Mediterranean in Europe.

That is my proposal to all countries, which desire peace in Asia.

Korea, China and Japan have already depended on each other for centuries on their path to development. I believe nothing sums up the interdependent nature of the three countries better than this old Chinese saying: "If the lips are gone, the teeth will grow cold".



When the three countries share their vision for an Asian Peace Community, it will lead to a stronger foundation for peace and prosperity. To this purpose, it is imperative to end the old order that prevailed during the conflict-filled 20th century. It is essential to join our forces to keep imperialism and nationalism from taking root in Asia.

We need to stand together, moving beyond ethnic and territorial borders towards the future of peace and mutual prosperity in the 21st century. Civil societies and businesses have already quickened their pace in this regard. It calls for greater efforts and commitment from the governments.

For Korea, the Asian Peace Community plays a key role in reunification. The case of the German reunification proves that trust and consensus from neighboring countries are a must for the two Koreas to be reunited. When neighboring countries are convinced that Korea's reunification will contribute to peace and prosperity in Asia under the umbrella of the Asian Peace Community, Korea's reunification will be a natural course of event, not a remote possibility.

In addition, the Asian Peace Community promises new opportunities and economic prosperity for Chungnam, which is closest to China and has deep historic ties with Japan. A single market, more frequent exchanges and a stable order of peace will allow Chungnam to bring back the glorious days when the ancient Baekje Kingdom, served as a center of exchange in Northeast Asia.

Chungnam is committed to making the Asian Peace Community a reality. Chungnam will work together with its partners to identify elements for creating a shared vision. The first step in this regard was taken 100 years ago by a Korean independence activist, Jung-Geun Ahn. Prior to his execution, Ahn, a young man from Korea, a small and weak country, wrote an essay, "On Peace in East Asia" in his pursuit of eternal peace in Asia. In this work, Ahn proposed the organization of a standing committee with Korea, China and Japan and the creation of a joint bank and peacekeeping troops. It was a revolutionary idea that preceded the EU by eight decades.

"On Peace in East Asia" was an impossible dream during the era of imperialism. However, in the 21st century, we should take this dream closer to reality, and Chungnam will take the initiative.

Chungnam will make "The Pan-Yellow Sea Forum" a platform where the people of Asia, and the world, can work together in the name of the 'Asian Peace Community'.

Dear Citizens of Asia and the World!

here is an old Chinese saying that the sea does not reject any river streams. The Yellow Sea has embraced Asia through its history of conflicts and prosperity.

1,400 years ago, ancient kingdoms flourished through exchanges and cooperation by way of the Yellow Sea. The advanced culture crossed the Yellow Sea to spread knowledge and beliefs across the world. "Baekje Historic Areas", which the UNESCO has put on the World Heritage List earlier this year, are testament to the era of peaceful exchange and prosperity in Northeast Asia.

However, during the late 19th century and 20th century, the Yellow Sea was torn apart by imperial invasions, competition for hegemony and self-destructive wars. The Yellow Sea has been associated with pain and sorrow for the past 100 years, following a series of tragic events: the US expedition to Korea, the French campaign against Korea, the Japanese Battle of Ganghwa, the Sino-Japanese War for hegemony in Northeast Asia, the fratricidal Korean War and naval clashes between the North and South.

It is time to make the Yellow Sea a stage for prosperity and peace. Let us write a new chapter in history under the vision of the 'Asian Peace Community' in the 21st century.

Once again, I would like to extend my gratitude to all participants from Asia and the rest of the World.

Thank you

November 20, 2015 Governor of Chungnam Province

■축 사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아시아의 21세기를 열어가는 「2015 환황해포럼」이 열리게 된 것을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아시아 공동번영'을 위한 뜻 깊은 포럼을 마련해 주신 안희정 도지사님과 강현수 충남연구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바쁜 일정 속에서도 멀리 해외에서 우리 道를 방문해주신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대사님, 쉬지엔 중국 국제문제연구원 선임연구원님, 장샤오밍 북경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님, 추이순지 저장대 정치학과 교수님, 유키코 후카가와 와세다대 정치경제대 교수, 그리고 기조 발제를 해주실 안충영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들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환황해는 해양 실크로드의 과거·현재·미래입니다.

한·중·일 3국은 동아시아 역사의 경쟁자이자 협력자였습니다. 하지만, 근래 들어 국가 간 정치·경제적 이해관계 대립으로 엉켜 공동번영을 위한 노력은 커다란 진전이 없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동아시아의 각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우호증진 방안을 모색하며,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의 활시위를 잡아 당겨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 세계는 아시아의 역동적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환황해권 아시아는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떠오르며, 금융·기술·인프라 등 글로벌 경제의 심장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은 강대국 사이에 끼인 국가로 전락하느냐, 강대국으로 뻗어나가는 국가로 비상하느냐의 기로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道는 환황해권 아시아 경제시대의 생존전략으로 경쟁이 아닌 공조에 무게를 두고자 합니다. 각국의 지방정부는 분야별로 강점과 보완점이 공존하므로 서로 협력을 공고히 다져나간다면 新파워 동아시아로 동반 성장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청남도의회는 아시아 지방정부간 공동 번영을 위한 발돋움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모쪼록, 동아시아 번영의 불쏘시개가 될 이번 행사를 축하드리며, 자리를 빛내주고 계신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11.

충청남도의회의장 김 기 영

vi



Congratulatory Message

Local authorities of Korea, China and Japan to design "The Maritime Silk Road for 21st Century"

Ladies and gentlemen,

It is a great pleasure to meet you on the occasion of the Pan-Yellow Sea Forum.

On behalf of 2.1 (Two point one) million Chungnam people, I would like to extend my sincere welcome to you all to the 2015 Pan-Yellow Sea Forum, opening a new chapter of Asia in the 21st century.

First of all, I want to extend my sincere gratitude to the people - such as Heejung Ahn, governor of Chungnam Province, and Hyun-Soo Kang, president of Chungnam Institute, to name just a few, - for their dedication and commitment to opening this meaningful forum to promote "Shared Prosperity in Asia."

In particular, I would like to extend my welcome to distinguished guests, who have travelled a long distance, taking time out of busy schedules: Kathleen Stephens, former U.S. Ambassador to the Republic of Korea, Xu Jian, senior research fellow at the China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Zhang Xiaoming, professor at th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of Peking University, Shunji Cui, associate professor at the School of Public Affairs of Zhejiang University, Yukiko Fukagawa, professor at the School of Political Science and Economics of Waseda University, and the keynote speaker, Choong-Yong Ahn, chairman of the National Commission for Corporate Partnership.

The Pan-Yellow Sea defines where the Maritime Silk Road was, has been and will be.

Korea, China and Japan have been rivals and partners throughout the history of East Asia. However, the tripartite efforts to achieve shared prosperity have been derailed by conflicting political and economical interests and have failed to make a significant progress. At this juncture, I believe local authorities in East Asia should take the initiative in searching for ways to promote friendly relations and jumpstart the momentum to guide the region towards sustainable future growth.

Recently, Asia's dynamic potential has grabbed the global attention.

Asian countries in the Pan-Yellow Sea region have shifted from the "workshop of the world" to become the marketplace of the world, emerging as the center of the global finance, technology and infrastructure markets. In the fast-changing world of politics, Korea indeed stands at the crossroads of becoming a country sandwiched between global superpowers or moving on its path toward a new global powerhouse.

In this regard, Chungnam places a greater focus on cooperation, not on competition, as a way to survive an era, where the Pan-Yellow Sea area plays a key role in the global economy. I am convinced that when local authorities in East Asia enhance their partnerships in a way that leverages their respective strengths and compensate for their respective weakness, countries in East Asia will together emerge as a new power in the world.

The Chungnam Parliament will provide full support and assistance in promoting shared prosperity among local authorities in the region.

I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celebrate the opening of the Pan-Yellow Sea Forum, a stepping stone for East Asia's prosperity, and wish all the best for all participants. Thank you.

November 20, 2015

Kiyoung Kim Chairman of the Chungcheongnam-do Council

PR 🌑 GRAM

Registration Opening and Welcoming remarks Opening Address Hyunsoo Kang (President, Chungnam Institute) Welcoming Address Heejung Ahn (Governor, Chungnam Province) Congratulatory Message Kiyoung Kim (Chairman, Chungcheongnam-do Council) Keynote Roundtable "Roles of Chungnam for the Era of Pan-Yellow Sea" Moderator : Heejung Ahn (Governor, Chungnam Province) Panelists : "Reflections on Chungnam: Then and Now" by Kathleen Stephens (William J. Perry Distinguished Fellow at Stanford University / former U.S. Ambassador to the R.O.K.) • "Promot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Building the Pan - Yellow Sea Community : From the Chinese perspective" by Xu Jian (Senior Research Fellow, China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 Director, The Academic Council of CIIS)
Opening Address Hyunsoo Kang (President, Chungnam Institute) Welcoming Address Heejung Ahn (Governor, Chungnam Province) Congratulatory Message Kiyoung Kim (Chairman, Chungcheongnam-do Council) Keynote Roundtable "Roles of Chungnam for the Era of Pan-Yellow Sea" Moderator : Heejung Ahn (Governor, Chungnam Province) Panelists : "Reflections on Chungnam: Then and Now" by Kathleen Stephens (William J. Perry Distinguished Fellow at Stanford University / former U.S. Ambassador to the R.O.K.) • "Promot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Building the Pan - Yellow Sea Community : From the Chinese perspective" by Xu Jian (Senior Research Fellow, China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 Director, The Academic Council of CIIS)
 Welcoming Address Heejung Ahn (Governor, Chungnam Province) Congratulatory Message Kiyoung Kim (Chairman, Chungcheongnam-do Council) Keynote Roundtable "Roles of Chungnam for the Era of Pan-Yellow Sea" Moderator : Heejung Ahn (Governor, Chungnam Province) Panelists : • "Reflections on Chungnam: Then and Now" by Kathleen Stephens (William J. Perry Distinguished Fellow at Stanford University / former U.S. Ambassador to the R.O.K.) • "Promot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Building the Pan - Yellow Sea Community : From the Chinese perspective" by Xu Jian (Senior Research Fellow, China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 Director, The Academic Council of CIIS)
 Moderator : Heejung Ahn (Governor, Chungnam Province) Panelists : "Reflections on Chungnam: Then and Now" by Kathleen Stephens (William J. Perry Distinguished Fellow at Stanford University / former U.S. Ambassador to the R.O.K.) "Promot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Building the Pan - Yellow Sea Community : From the Chinese perspective" by Xu Jian (Senior Research Fellow, China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 Director, The Academic Council of CIIS)
 Panelists : "Reflections on Chungnam: Then and Now" by Kathleen Stephens (William J. Perry Distinguished Fellow at Stanford University / former U.S. Ambassador to the R.O.K.) "Promot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Building the Pan - Yellow Sea Community : From the Chinese perspective" by Xu Jian (Senior Research Fellow, China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 Director, The Academic Council of CIIS)
 "Talking Points Chungnam's Cross-Border Value Chain and Logistics Management in the Pan-Yellow Sea Rim" by Ahn, Choong-Yong (Chairman, Korea Commission for Corporate Partnership)
Coffee Break
The 1st Session "Seeking out 'Peace Community' in East Asia"
 Moderator : Chung-in Moon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Yonsei University) Presenters : "The US and Northeast Asia in the 21st Century : Continuity and Change" by Kathleen Stephens (William J. Perry Distinguished Fellow at Stanford University / former U.S. Ambassador to the R.O.K.) "Searching for a Peace Community in Yellow Sea: The roles to be played by two Koreas, China, and the US" by Zhang Xiaoming (Professor,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and Deputy Director, Institute of International Relations, Peking University) "The East Asian Security Structure and Building the Peace Community"
T



November 20th(Friday), 2015 • Venue : Lotte Buyeo Resort •

Time	Program
16:30-16:40	Coffee Break
16:40-18:20	The 2ndSession "Pan-Yellow Sea Economic and Environmental Cooperation"
	Moderator : Choong-yong Ahn (Chairman, Korea Commission for Corporate Partnership) Presenters :
	The Frontier and the Challenges" by Yukiko Fukagawa (Professor, School of Political Science & Economics, Waseda University)
	 "The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of Chungnam in the Era of Pan- Yellow Sea" by Sung Hoon Yi (President, Sehan University)
	 "Maritime and Fishery Policies of Chungnam towards the New Era of Pan- Yellow Sea" by Jaeyoung Huh (Chairman, Policy Advisory Committee of Chungcheongnam-do)
	 "The Era of Pan-Yellow Sea and the Choongnam's Strategy towards China" by Insung Park (Senior Research Fellow / Director, China Research Team, Chungnam Institute)
18:20-18:50	Closing Roundtable
	Moderator : Chung-in Moon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Yonsei University) Panelists : Heejung Ahn (Governor, Chungnam Province) Kathleen Stephens (William J. Perry Distinguished Fellow at Stanford University / former U.S. Ambassador to the R.O.K.) Xu Jian (Senior Research Fellow, China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 Director, The Academic Council of CIIS) Choong-yong Ahn (Chairman, Korea Commission for Corporate Partnership)
18:50	Close



시 간	프로그램
13:30-14:00	등 록
14:00-14:10	개회식
	개회사 강현수 (충남연구원장) 환영사 안희정 (충청남도지사) 축 사 김기영 (충청남도의회 의장)
14:10-15:10	기조 라운드테이블 "환황해시대를 위한 충남의 역할"
	좌 장 : 안희정 (충청남도지사) 패 널 : • "충남에 대한 단상: 과거와 현재" 캐슬린 스티븐스 (스탠포드대학교 William J. Perry Distinguished Fellow / 전 주한미국대사) • "환황해 공동체 구축을 위한 국제 협력 증진: 중국의 입장" 쉬지엔 (중국 국제문제연구원 선임연구원 / CIIS 학술위원회 주임) • "화두 충남의 국경간 가치 사슬과 환황해 지역의 물류 관리" 안충영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15:10-15:20	커피 브레이크
15:20-16:30	제1세션 "동아시아 평화공동체의 모색"
	좌 장 : 문정인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패 널 : • "21세기 미국과 동북아시아 : 연속성과 변화" 개슬린 스티븐스 (스탠포드대학교 William J. Perry Distinguished Fellow, / 전 주한미국대사) • "황해 평화공동체의 모색 : 두 개의 한국, 중국 그리고 미국의 역할" 장샤오밍 (북경대학교 국제관계학원 교수 / 국제관계연구소 부소장) • "동북아 안보구조와 평화공동체 구축의 가능성" 김준형 (한동대학교 국제어문학부 교수)



•시간 2015년 11월 20일(금) • 장소 롯데부여리조트

시 간	프로그램
16:30-16:40	커피브레이크
16:40-18:20	제2세션 "환황해 경제와 환경 협력"
	좌 장 : 안충영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패 널 : • "도시간 환경협력 촉진 방안"추이순지 (저장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 "일본, 중국, 한국 간의 환경협력에 있어 로컬 이니셔티브 : 개척자 정신과 도전들" 유키코 후카가와 (와세다대학교 정치경제학부 교수) • "환황해시대의 충남 경제발전 전략"이승훈 (세한대학교 총장) • "충남 해양수산정책이 지향하는 새로운 환황해시대" 허재영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 "환황해시대와 충남의 對중국 전략" 박인성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 중국 연구팀 팀장)
18:20-18:50	폐회 라운드 테이블
	좌 장 : 문정인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패 널 : 안희정 (충청남도지사) 개슬린 스티븐스 (스탠포드대학교 William J. Perry Distinguished Fellow, / 전 주한미국대사) 쉬지엔 (중국 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 CIIS 학술위원회 주임) 안충영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18:50	폐회

Main Participants 🌑 주요 참석자



안희정 Heejung Ahn

Governor, Chungnam Province

Graduated from Korea University majoring in philosophy, Director of Local Government Executive Institute, Director of Institute for Better Democracy, the 36th and 37th Governor of Chungnam Province

고려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했다. 지방자치실무연구소 사무국장,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 소장을 역임했다. 제36대와 37대 충청남도지사를 연임하고 있다.

.



문정인 Chung-in Moon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and Diplomacy at Yonsei University and editor of English quarterly Global Asia, Director of KDJ Presidential library at Yonsei University, Council of Presidential Committee on Unification Preparation, Consultant to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Worked as Dean of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Chairman of Presidential Committee on Northeast Asia Cooperation Initiative (Minister level), Ambassador for International Security Affairs. Taught at Williams College, the University of Kentucky, UCSD, and visiting professor at Keio University and Peking University.

As academic achievements, Moon published around 40 books and articles in thesis and academic paper including World Politic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World Development, etc. Recent publications include 『What does Japan think about now?』, 『The Sunshine Policy: In Defense of Engagement as a Path to Peace in Korea』, 『Ask about the future of China』(Korean and Chinese), 『The United States and Northeast Asia:

Debates, Issues, and New Order_I, ^FArms Control on the Korean Peninsula_I. Currently working as a consultant to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 and Republic of Korea Air Force. Worked as advisory to National Security Council,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nd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Engaged in defense reform as a member of Defense Reform Committee from 2005 to 2007, a only scholar who participated as a special entourage during the first and second inter–Korean Summit. Received Public Policy Scholar Award from Woodro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Lixian Scholar Award from Peking University, and UCSD Pacific Fellowship Award. Worked as Vice President of ISA and President of the Journal of Peace Studies. Dispatched as Experts/eminent persons for ASEAN Region Forum and was a co-chairman for the first and second round of ARF–EEP meeting in June, 2006 and February, 2007.

문정인은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이자 영문 계간지 Global Asia 편집인이다. 또한 연세대 김대중 도서관 관장을 맡고 있으며, 현재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위원 및 외교부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장과 대통령 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 위원장 (장관급) 및 외교통상부 국제안보 대사직을 역임한 바 있다. 윌리엄스대학교, 켄터키대학교, 듀크대학교,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샌디에고캠퍼스(UCSD)에서 가르치고 게이오대학교 및 북경 대학교에서 방문교수를



역임했다. 연구 업적으로 40여권의 편저서 및 World Politic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World Development 등 각종 논문집과 학술지에 300여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최근 출간물로 『일본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는가?』, 『The Sunshine Policy: In Defense of Engagement as a Path to Peace in Korea』, 『중국의 내일을 묻다』(국문 및 중문), 『The United States and Northeast Asia: Debates, Issues, and New Order』, 『Arms Control on the Korean Peninsula』 등이 있다. 현재 외교부, 국립외교원, 대한민국 공군 자문위원이며, 국가안전보장회의, 국가정보원, 국방부 자문을 맡은 바 있다. 2005-2007년 국방개혁추진단 위원으로 국방개혁에 참여하였으며, 1·2차 남북정상회담에 특별수행원으로 참석한 유일한 학자이기도 하다. 워싱턴 DC 우드로윌슨센터 Public Policy Scholar Award, 북경대학교 Lixian Scholar Award, UCSD Pacific Fellowship Award 등을 수상하였다. 미국 국제정치학회 (ISA) 부회장 및 한국평화학회 회장을 맡은 바 있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전문가 및 저명인사(EEPs)로 파견되어, 2006년 6월 및 2007년 2월 1차·2차 ARF-EEP 회의 공동의장을 맡았다.



안충영 Choong-yong Ahn

Working as a Chaired Professor of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Chung Ang University and Chairman of Korea Commission for Corporate Partnership from August, 2014. B. A. from Kyungbuk National University, M. A. from University of Hawaii, Ph. D from Ohio State University in 1972.

Worked as a professor of Economics at Department of Politics and Economics, Chung Ang University from 1974 to 2006, Chairman of Presidential Committee on Regulatory Reform from 2010 to 2012, Director of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from 2002 to 2005, Chairman of APEC Economic Committee from 2000 to 2004, Member of Presidential Committee on National Economic Advisory Council from 1998 to 2002, President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Trade and Industry Studies from 1997 to 1998.

Main books and articles include 「現代東アジア經濟論」 日本 岩波書店, 2000, 「現代 韓國·東 Asia 經濟論」 博英社, 2001. 「現代東亞經濟論」 北京大 出版社, 2004, 「Economic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First Step Towards Integration」, co-compiler. 博英社,

2003. Published articles in international academic journal and books including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cs, European Economic Review, Japanese Economic Review, Asian Journal of Economics, Global Asia, North Holland Monograph.

Received the 13th Free Economy Publication Culture Award by the Federation of Korean Industries, First 〈NIRA 大來 (Okida) 政策研究賞〉 under Japanese Prime Minister's Office 總合研究開發機構(NIRA), 14th Economist Award in 1984 by Maeil Business Newspaper, 2014 Korea Investment Awards (Brass Industry Prize).

안충영은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좌교수이자 현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2014.08-현재)으로 재직하고 있다. 경북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하와이대학교에서 석사, 오하이오주립대학교에서 박사학위(1972)를 받았다.

안충영 위원장은 중앙대학교 정경대학 경제학과 교수(1974-2006),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2010-201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2002-2005), APEC 경제위원회 의장(2000-2004), 대통령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1998-2002), 한국국제통상학회 회장(1997-1998) 등을 역임하였다.

안충영 위원장의 주요저서 및 논문으로는「現代東アジア經濟論」日本 岩波書店, 2000,「現代 韓國·東아시아 經濟論」博英社, 2001.「現代東亞經濟論」北京大 出版社, 2004,「동북아 경제협력: 통합의 첫걸음」, 공동 엮음. 博英社, 2003 등이 있으며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cs, European Economic Review, Japanese Economic Review, Asian Journal of Economics, Global Asia, North Holland Monograph 등 세계적 학술지와 단행본 시리즈에 논문을 등재 하였다.

안충영 위원장은 제13회 전경련 자유경제출판문화상 수상. 일본 수상실 산하 總合研究開發機構(NIRA) 제정 제1회 (NIRA 大來 (오키다) 政策研究賞〉 수상. 매일경제신문사 제정 1984년도 14회 이코노미스트상 수상. 2014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어워즈(동탑산업훈장) 등을 수상하였다.



캐슬린 스티븐스 Kathleen Stephens

Kathleen Stephens was U.S. Ambassador to the Republic of Korea, 2008–2011. She is now William J. Perry Distinguished Fellow at Stanford University. She also teaches at Hanko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as an Endowed Chair Professor.

Ambassador Stephens' diplomatic career also included: U.S. Charge 'd Affaires, New Delhi, India, 2014–2015. Acting Undersecretary of State for Public Diplomacy and Public Affairs, 2012.

Principal Deputy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East Asia and Pacific Affairs, 2005–2007. Deputy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European and Eurasian Affairs, 2003–2005.

Ambassador Stephens also served in earlier diplomatic assignments in Korea, China, and Europe. She was a Peace Corps volunteer in Korea 1975–1977.

Ambassador Stephens holds a Master's degree from Harvard University and an honorary doctorate from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캐슬린 스티븐스는 2008-2011년 주한미국대사를 역임했고, 현재 스탠포드 대학교의 William J. Perry Distinguished Fellow, 한국 외국어 대학교 석좌교수이다.

스티븐스 대사는 2014-2015년 인도 주재 대사 대행을 역임했고, 2012년 공공 외교와 공무에 대한 국무부 차관 대행을 역임하기도 했다.

또한 2005-2007년에는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선임 고문, 2003-2005년에는 유럽과 유라시아 담당 부차관보를 역임했다. 스티븐스 대사는 외교관 시절 한국, 중국, 유럽에서 근무했다. 1975-1977년 평화봉사단원으로 한국에서 근무하였다. 스티븐스 대사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고 충남 대학교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쉬지앤 Xu Jian

• • • • • • • • • • • • •

Professor Xu Jian, born in 1962, is now Senior Fellow of China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CIIS) and Chairman of the Academic Council of CIIS. He worked as Minister Counselor at the Embassy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to the Russian Federation in 2010–2012, Coun–selor at the Permanent Mission of the PRC to the United Nations in 2008–2010, Candidate Representative of the PRC to the United Nations in 2010, Vice President of CIIS in 2003–2008. Heworked as a Senior Research Fellow in the former China Center for International Studies (CCIS) of the State Council in 1993–1999 as well. He had a PhD degree in the University of Bristol in 1993. He writes extensively (about 300 articles and essays) in both internally circulated reports and publicly circulated journals, and is the editor or a coeditor of a number of books, coveringa wide range of areas including international politics, world economy, great power relations, wi–th special focus on the United States, Russia, regional security in the Asia Pacific, and China's diplomacy. He has the honor of taking the special allowance for outstanding academic contribu-tions released by the State Council. He is a listed top–level expert for

direct contact by the central authorities of China.

중국 국제 문제 연구소 선임 연구원 / 국제 문제 연구소 학회 위원회 소장

1962년생인 쉬 지엔 교수는 현재 중국 국제 문제 연구소 선임 연구원과 국제 문제 연구소 학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2010-2012년 주러 중국대사관 관리 참사관을 역임했고, 2008-2010년 UN 주재 중국 상임 위원, 2010년 유엔 중국 후보 대표, 2003-2008년 국제 문제 연구소 부소장을 역임했다. 1993-1999년 전 국무원 국제 연구 중국 센터 선임 연구원으로 일한 바 있다. 1993년 브리스톨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고, 국제 보고서와 공공 학술지에 약 300편의 논문과 에세이를 발표했으며, 국제 정치, 세계경제, 열강 관계 특히 미국, 러시아, 아태 지역 안보, 중국의 외교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분야의 책을 저술하고 공편했다. 뛰어난 학문적 공헌을 인정받아 국무원에서 수여하는 특별 보조금을 수상하기도 했다. 쉬 지엔 교수는 중국 중앙 당국에 의해 탑 레벨 전문가 명단에 속해있다.





장샤오밍 Zhang Xiaoming Zhang Xiaoming is a professor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associate editor of The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at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Peking University, Beijing, China, where he has taught since 1988. He was educated at Peking University (BA in 1985, MA in 1988 and Ph.D. in 1993). He has been working on Cold War history, China's relations with its neighboring countries, US–East Asia relations, and theo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He is the author of the following books in Chinese: George F. Kennan's Containment (1994), Cold War and Its Legacy (1998), China's Relations with Its Neighbors (2003), English School of International Relations: History, Theory, and View on China (2010), An Introduction to the History of US–East Asia Relations (2011). He also published English articles in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Asian Perspective, East Asia: An International Journal, etc. He was a fellow of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at Woodrow Wilson Center (1994), fellow of Korea Foundation at Korea University (1998), Fulbright research scholar at Harvard University (1999–2000), guest researcher

at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2000), visiting professor at Chuo University, Japan (2005), and visiting senior scholar at London School of Economics (LSE) (2007–2008).

장 샤오밍은 베이징 북경 대학교 국제 관계 대학원 교수이자 국제 지역학회지의 부편집자로, 1988년부터 교편을 잡아왔다. 북경 대학교에서 수학하였다 (1985년 학사, 1988년 석사, 1993년 박사). 장 샤오밍 교수는 냉전 역사, 인접국과 중국의 관계, 미-동아시아 관계, 국제 관계 이론을 연구해왔다. 중국어로 된 다음 저서를 출판했다; George F. Kennan의 봉쇄 (1994), 냉전과 그 유산 (1998), 중국과 인접국의 관계 (2003), 영국 학파의 국제 사회론: 역사, 이론, 중국에 대한 견해 (2010), 미-동아시아 관계에 대한 소개 (2011). 이 외에도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Asian Perspective, East Asia: An International Journal 등에 영어 논문을 발표하였다. 우드로 윌슨 센터 냉전 국제 역사 프로젝트 연구원 (1994), 고려 대학교 한국 재단 연구원 (1998), 하버드 대학교의 Fulbright research scholar (1999-2000), 스톡홀름 국제 평화 문제 연구소의 초빙 연구원(2000), 일본 주오 대학의 방문 교수 (2005), 런던 정경대의 방문 선임 연구원 (2007-2008)을 역임한 바 있다.



김준형 Joon-hyung Kim

• • • • • • • • • • • • •

- Professor of International Relations, Handong University

Dr. Joon Hyung Kim is Professor of the International Studies Department, Handong Global University. His areas of specialization and interests are theori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Northeast Asian relations including US-China, US-ROK, and North-South Korean relations. He teaches courses such as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ies of International Politics, U.S. Foreign Polic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East Asian International Relations. He was also invited as a Fulbright Visiting Scholar to George Mason University, Department of Public and International Affairs, USA(2005-2006) and taught several courses including US-Korea Relations and East Asian International Politics & Two Korea. He participated in the Presidential Committee for Policy Planning and evaluated Roh Moo Hyun Government's foreign policy for the first two years of incumbency(2004–2005). Since early 2007, Dr. Kim has involved in the Korea Institute for Future Strategies (KIFS), a renowned network based think-tank, as a Director of Center for Diplomacy and Security. Since 2011, Dr. Kim has involved in the

Korea Peace Forum, another renowned network based think-tank specialized in the peace and unification issu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became an executive director in 2013. Dr. Kim has completed a number of research papers on US foreign policy and US–ROK alliance issues. He has also published numerous books on diverse issues. Dr. Kim earned his Bachelor's Degree at Yonsei University(1986), and M.A. and Ph.D. at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During his graduate studies, he worked as Research Assistant at the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USIP) and participated in the Korea Working Group during the first North Korean nuclear crisis in 1994.

김준형은 한동대 국제학과 교수이다. 그의 전문분야와 관심영역은 국제관계이론, 미국-중국, 미국-한국, 남북 관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관계이다. 그는 국제관계입문, 국제정치이론, 미국의 외교정책, 국제기구,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이론 소개 등의 과목을 가르치고 있다. 그는 또한 2005-2006년도 미국 조지메이슨대학에서 풀브라이트 공공 및 국제문제부문 방문연구원으로 있으면서 한미관계, 동아시아국제정치, 남북한에 대하여 여러 과정에서 강의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첫 2년(2004-2005)간 정책기획 및 평가를 위한 대통령 위원회에 참여하여 정부의 외교 정책을 평가했다. 2007년 초 이후로 네트워크 싱크탱크인 미래전략연구원(KIFS)에서 외교안보센터장으로 있었다, 2011년부터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문제를 다루는 네트워크 싱크탱크인 한국평화포럼에 참여해왔으며 2013년에는 사무총장직을 수행했다. 김준형 교수는 미국의 외교정책과 한미동맹문제에 대한 많은 연구논문을 저술했고, 그 외에도 다양한 문제에 대한 책을 집필했다. 연세대에서 학사학위(1986), 조지워싱턴대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각 취득하였다. 대학원 재학 중 미국평화연구소 (USIP)에서 연구 조교로 근무하였고 1994년 최초의 북한 핵 위기 당시 한국 소위원회에 참여한 바 있다.

• • • • • • • • • • • •



추이순지 Cui Shunji Shunji CUI is an Associate Professor of International Politics and Deputy Director in th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School of Public Affairs at Zhejiang University, Hangzhou, China. She is also a Research Fellow at Zhejiang University's Center for Non-Traditional Security and Peaceful Development Studies. She was awarded a British Academy Visiting Fellowship in 2010 at LSE, UK: and a Fulbright Scholar-in-Residence in 2012-13 and taught at Marian University, USA. Her research has dealt with International Security, Human Security and Non-Traditional Security cooperation with reference to China-Japan and East Asian relations. Her publications include: 'Conflict Transformation: East China Sea Dispute and Lessons from the Ecuador-Peru Border Dispute,' Asian Perspective (2014); 'Human Development and Human Dignity: Rethinking the Concept of Human Security', Journal of International Security Studies (2014, in Chinese); 'Beyond History: Non-Traditional Security Cooperation and The Construction of Northeast Asian International Society,'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2013): and 'Problems of Nationalism and Historical Memory in China's Relations with

Japan,' Journal of Historical Sociology (2012).

추이순지는 중국 항저우에 위치한 저장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이자 학과 부국장이다. 저장대학교 비전통 안보와 평화로운 발전 연구 센터 선임 연구원이기도 하다. 2010년 영국 런던정경대에서 British Academy Visiting Fellowship, 2012-13년에는 Fulbright Scholar-in-Residence를 받았고, 미국 마리안 대학교에서 재직했다. 추이순지의 연구는 국제 안보, 인류 안보, 중-일, 동아시아 관계에 대한 비전통 안보 협력을 다룬다. 출간물은 다음과 같다. '분쟁의 변혁: 동중국해 분쟁과 에콰도르-페루 국경 분쟁의 교훈,' 아시아적 관점 (2014); '인류 발전과 인류 존엄성: 인류 안보에 대한 재고', Journal of International Security Studies (2014, 중국어); '역사를 넘어: 비전통 안보 협력과 동북아시아 국제 사회의 구성,'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2013); '국가주의의 문제와 중-일 관계의 역사적 기억,' Journal of Historical Sociology (2012).



유키코 후카가와 Yukiko Fukagawa

• • • • • • • • • • • •

Yukiko Fukagawa is currently a Professor, School of Political Science and Economics, Waseda University and a Visiting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Yonsei University.

After undergraduate program at Waseda, she studied at Yale University for MA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Economics, and finished Ph.D program at Waseda Graduate School of Business Studies. Her major interest lies in economic development in East Asia, especially Korea, including their industrial/trade policies. She worked for Japan External Trade Organization (JETRO) and Long-Term Credit Bank Research Institute (LTCBR) before joining the faculty member of Aoyama Gakuin University and the University of Tokyo before coming back to Waseda.

She engaged in many consultation and advisory activities for the government, such as the Committee for Foreign Exchange in the Ministry of Finance, the Committee for Industrial Structure in the Ministry of Economy and Industry etc... She served as the Chairman of Economic Section in "Japan-Korea Joint Study for the New Era" project

opened in 2013. Her recent publication includes "Korea: The Development Experience and the Aid Policy", in Japan's International Cooperation (2015), co–ed with Ohtsuka and Kurosaki, Yuhikaku, and Northeast Asia and Japan–Korea Relations in Post Financial Crisis (2013), co–ed with Yul Sohn, Institute of Asia Studies, Waseda University..

유키코 후카가와는 일본 와세다대 정경대 교수, 연세 대학교 국제 대학원 방문 교수이다. 와세다 대학에서 학부를 마치고, 예일 대학교에서 국제 개발 경제 분야 석사를 취득하고, 와세다 경영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마쳤다. 유키코 후카가와는 동 아시아 특히 한국의 산업/무역 정책을 포함한 경제 발전에 관심이 많다. 일본 무역 진흥 기구와 장기 대출 은행 연구소에서 일하다 아오야마 가쿠인 대학교와 동경 대학교 교수를 역임한 후, 와세다 대학교로 돌아왔다. 재무성 외환 위원회, 경제 산업성 산업 구조 위원회 등 정부를 대상으로 자문을 제공해왔다. 2013년 시작된 "새로운 시대를 위한 한-일 공동 연구"의 경제 부문 위원장을 역임했고, 최근 Ohtsuka, Kurosaki, Yuhikaku와 "한국: 발전 경험과 원조 정책"을 공동 편집해 일본의 International Cooperation에 출간했고 (2015), Yul Sohn과 공동 편집한 와세대 대학 아시아 연구회의 금융 위기 이후의 동북 아시아와 한-일 관계 (2013)를 출간했다.

• • • • • • • • • • • •



이승훈 YI SUNGHOON

President of Sehan University, Co-chairman of the April Society, and Vice President of Korean Association of Private University Presidents.

Graduated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majoring in Business Administration, and received an MBA degree from School of Business at the University of Michigan, Ph. D from Graduate School of Jeonju University majoring in Business Administration.

Worked as Director General for 21 Century Korea–China Exchange Association since 2001, has been focusing on nurturing China experts including creation of a dedicated department to nurture resources to lead the global era at Sehan University and establishment of Korea–China Joint Graduate School

이승훈 박사는 세한대학교(SEHAN UNIVERSITY) 총장이자 사단법인 4월회 공동의장 및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부회장이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美 미시간대 경영대학원(MBA) 과정을 이수하였으며, 전주대 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2001년부터 21C한중교류협회 지도자 사무총장을 역임하였고, 글로벌시대를 이끄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세한대학교에 전담부서 신설, 한·중 합작대학원 설립 등 중국전문가 양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허재영 Jaeyoung Huh

• • • • • • • • • • • • •

- Chairman, Policy Advisory Committee of Chungcheongnam-do

Majored in Coastal Engineering and Estuary Hydraulic at the department of Civil Engineering, is teaching subjects related to water resources including hydraulic, hydrology, and water resource engineering, etc at the department of Civil Engineering at Daejeon University.

Head of Policy Advisory Committee of Chungcheongnam-do, Head of Maritime and Fisheries department under the committee.

Interested in utilization of sustainable coastal areas and beaches,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recovery of coastal areas and beaches.

토목공학과에서 해안공학과 하구수리학을 전공하였고, 현재 대전대학교 토목공학과에서 수리학, 수문학, 수자원공학 등 수자원관련 과목을 강의하고 있다.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또한 정책자문위원회 해양수산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 지속가능한 해안 및 연안의 이용과 그것을 위한 해안 및 연안의 환경보전 및 복원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박인성 Insung Park

- Research Fellow, Chungnam Institute

Studied at University of Seoul (Architectural engineering) and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 (Urban planning, MA), Renmin University of China 中國人民大學 (Regional economy, Ph.D). Worked as a researcher at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for 20 years.

Visiting Scholar at Geography Research Institute of Chinese Academy of Science 中国科学院 (Jan, 1993~Oct), guest researcher at Shanghai Urban planning and Design Research Ins.上海市城市规划设计研究院 (Feb, 2000~Aug), guest professor at Renmin University of China 中國人民大學 (Sep, 2003~ Aug, 2004), Professor, School of Land Management and Urban Development at Zhejiang University, Hangzhou, China from Sep, 2004 to 2014. Director of China Research at Chungnam Institute from Sep, 2014

Major publications include 「Land Reform Experience in China」(co-author, Hanul: 2011), 「Urbanization and development Axis in China」(Hanul: 2009), 「Status of Construction Industry in China and investment Strategy」(co-author, Bomundang: 2007), 「Economic Geography of China」(co-author, Hanul).

서울시립대(건축공학), 서울대 환경대학원(도시계획, 석사), 中國人民大學(지역경제, 박사)에서 공부했고, 국토연구원에서 20여년 연구직으로 근무했고, 최종직위는 연구위원이다.

中国科学院 지리연구소 경제지리부 방문학자(1993.1~10)와 上海市城市规划设计研究院 초빙연구원(2000.2~8), 中國人民大學 초빙교수(2003.9~2004.8)로 근무했고, 2004년 9월 학기부터 2014년까지 중국 항저우(杭州)시에 소재한 저장(浙江)대학 토지관리학과와 도시발전관리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2014년에 9월부터 중국에서 귀국하여 현재까지 충남연구원 중국연구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주요 저서는, 「중국의 토지개혁경험」(공저, 한울: 2011), 「중국의 도시화와 발전축」(한울: 2009), 「중국 건설산업의 현황과 진출전략」(공저, 보문당: 2007), 「중국경제지리론」(공저, 한울: 2000) 등이 있다.



강현수 Hyunsoo, Kang

.

President of Chungnam Institute. Graduated from School of Engineering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B. A. and M. A from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Kang has been working as a professor at Joongbu University and worked as Commissioned Researcher at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member of Presidential Committee on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Committee on Northeast Asia Hub, and President of Korea Association of Space and Environment Research. Finished Post Doc as a visiting professor at Oxford University, U.K. and visiting professor at MIT.

Majored in urban and region planning and studied sustainable development. Kang has been working as a president of Chungnam Institute, a think-tank for Chungnam region. Major publications include 《Regional Innovation System of the World》 (co-author, 2004), 《Theory of New Area Development》 (co-author, 2009), 《Rights to Cities》 (2010), 《Urban Policy in the Age of Low-growth》 (co-author, 2011), 《e-Topia》 (2001), 《Technopole of the world : Creating 21c Industrial Complex》 (co-translated, 2006), 《Mobility》 (co-translated, 2014).

강현수는 현재 충남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2년부터 중부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며 국토연구원 위촉연구위원, 대통령자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전문위원, 한국공간환경학회 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방문교수로 있으면서 학위후(Post Doc.)과정을 거쳤고, 미국 MIT 대학교 방문교수로 재직했다.

전공은 도시 및 지역계획학으로 도시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연구를 주로 해왔다. 2013년부터 충청남도의 싱크탱크인 충남연구원 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세계의 지역혁신체계》(공저, 2004), 《신지역발전론》(공저, 2009), 《도시에 대한 권리》(2010), 《저성장 시대의 도시정책》(공저, 2011), 《인권도시 만들기》(2014) 등이 있고, 역서로 《e - 토피아》(2001), 《세계의 테크노폴 : 21세기 산업단지 만들기》(공역, 2006), 《모빌리티》(공역, 2014)등이 있다.

Contents

Keynote Presentation

1. Reflections on Chungnam: Then and Now 5 Kathleen Stephens(William J. Perry Distinguished Fellow at Stanford University / former U.S. Ambassador to the R.O.K.) 캐슬린 스티븐스(스탠포드대학교 William J. Perry Distinguished Fellow / 전 주한미국대사) 2. Promot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Building the Pan - Yellow Sea Community : From the Chinese perspective 12 Prof. Xu Jian (Senior Research Fellow, China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 Director, The Academic Council of CIIS) **쉬지엔**(중국 국제문제연구원 선임연구원 / CIIS 학술위원회 주임) 3. Talking Points Chungnam's Cross-Border Value Chain and Logistics Management in the Pan-Yellow Sea Rim 20 Ahn, Choong-Yong

(Chairman, Korea Commission for Corporate Partnership)

화두

Session 1

동아시아 평화공동체의 모색
1. Searching for a Peace Community in Yellow Sea: The roles to be played by two Koreas, China, and the US
Zhang Xiaoming (Professor,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and Deputy Director, Institute of International Relations, Peking University)
2. 동북아 안보구조와 평화공동체 구축의 가능성

Session 2

환홍	항해 경제와 환경 협력	47
1.	Promoting Environmental Cooperation on The City-to-City (C2C) Level: Perspectives of City Diplomacy Shunji Cui(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Zhejiang University)	
2.	Local initiatives in Japan-China-Korea environment cooperation: The Frontier and the Challenges	55
3.	환황해시대의 충남 경제발전 전략	66
4.	충남 해양수산정책이 지향하는 새로운 환황해시대 허재영(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81
5.	환황해시대와 충남의 對중국 전략 박인성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중국연구 팀장)	98



Keynote Presentation환황해시대를 위한 충남의 역할

좌 장 _ 안희정(충청남도지사)

- 패 널_1. Reflections on Chungnam: Then and Now Kathleen Stephens(William J. Perry Distinguished Fellow at Stanford University / former U.S. Ambassador to the R.O.K.)
 - Promot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Building the Pan Yellow Sea Community : From the Chinese perspective Prof. Xu Jian(Senior Research Fellow, China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 Director, The Academic Council of CIIS)
 - Talking Points Chungnam's Cross-Border Value Chain and Logistics Management in the Pan-Yellow Sea Rim

Ahn, Choong-Yong(Chairman, Korea Commission for Corporate Partnership)



Keynote Presentation

Reflections on Chungnam: Then and Now

Kathleen Stephens (William J. Perry Distinguished Fellow at Stanford University / former U.S. Ambassador to the R.O.K.)

Governor Ahn Heejung, ladies and gentlemen:

I am honored and delighted to join you for this important gathering. It is a particular pleasure to be back in Chungnam, my Korean "hometown."

I first came to Korea – and to Chungnam – forty years ago, in 1975, as a young Peace Corps volunteer.

I came to teach, but I learned far more than I taught.

I learned my first lessons about Korea, about Northeast Asia – and about diplomacy – here in Chungnam.

In the ensuing years, I lived and worked in and on China and Korea – as a young diplomat assigned to China shortly after the U.S. and China reestablished full diplomatic relations, in Korea in the 80s during a time of great political change – and again over the last decade in our joint efforts in the Six Party Talks – as well as U.S. Ambassador to Korea.

Despite all those years, I am here today more to listen and to learn than to prescribe

5

or pontificate.

I very much welcome Governor Ahn's initiative, and the commitment of everyone here, to deepen a dialogue between the people of Chungnam – and those in this remarkable and vibrant region of the Yellow Sea.

One of the lessons I learned living in Chungnam forty years ago was an appreciation for the history of this region – a history still being uncovered and more deeply understood.

I learned that during the period of the Three Kingdoms, Korea – and in particular the Paekche Kingdom with its capital in Buyeo, was a transmission belt, receiving and exporting culture and technology in the region.

Historians tell us that during this time, there was considerable interchange between what are now Japanese islands,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mainland of China. In this early period, the people on what is now the southwest coast of Korea unofficially controlled much of the trade in the Yellow Sea and between China and Japan.

And of course it was here in Buyeo that we can still see the memorials to the battles that pitted Silla against Paekche, along with forces from Tang China and from Japan.

All that was a long time ago. But it's a reminder that our discussions today are in a place that, even within the Korean context, has been an extraordinary focus of cooperation as well as competition and conflict.

But before I turn to the issues of today, the issues that will shape the lives of the next generation, let me say just a few words about the more recent past, a past in Chungnam I experienced personally.

It's become a cliché to talk about Korea's extraordinary modern development as an economic power and a mature democracy , remarkable both its speed and for its emergence from the most unpromising of starts: colonial rule, division, war.

The Korea - the Chungnam - I first knew in the 1970s was a very different place from

what we see today. My one contact with the outside world – with "internationalization" – was the heavily censored copy of Time magazine I could buy once a week on a trip to Taejon, the provincial capital. My mere walking down the street anywhere in Chungnam drew immense curiosity from young and old, most of whom had never seen a Westerner before. I knew no one who had ever been to the U.S., or for that matter anywhere outside Korea. Getting a passport, or foreign currency, was rare indeed.

But things were changing, even in the two years I lived in Chungnam. I saw it with my own eyes: the fruits of economic development delivering benefits and change – education, opportunity, jobs. In later years, when I returned in the '80s, I saw the fruits of democratization in a blossoming of creativity and energy.

During my time as American ambassador to Korea, it was always a special pleasure to return to Chungnam. It has changed almost – but happily – not completely – beyond recognition. It has, indeed, become international.

And it is not just Chungnam – or Korea – that has changed. The region around it has, too, notably China and its own remarkable rerise as a major economic power and partner to Korea, Japan, and of course the United States.

I have fond memories of weekends on the Yellow Sea, watching the fishermen and their boats, the farmers in the fields. You can still find them today, but even more, of course, there is intense economic activity, bringing new prosperity certainly, but also greater environmental challenges.

At the same time the security challenges are more complex than ever.

A more recent and far less fond memory for me, and for many of us here, is of the sinking of the Cheonan in 2010, as well as the shelling of Yeon-pyong Island. These acts, combined with North Korea's pursuit of nuclear weapons, and heightened maritime tensions, underscore both the difficulty and the necessity of addressing the security as well as the economic and environmental issues of the Yellow Sea and the surrounding regions.

8 환황해포럼 | 아시아 평화공동체를 향한 첫 걸음

I hope that in this conference and in the efforts to follow a dialogue can begin and grow that will address these issues.

I appreciate being asked to participate in this efforts. Both as an adopted daughter of Chungnam, and as a former American official, I would like to see the United States – both at the governmental and private levels, contribute to a dialogue aimed at building confidence, reducing tensions, improving communication, and growing trade and shared prosperity in the Yellow Sea and beyond.

기조발제

충남에 대한 단상: 과거와 현재

캐슬린 스티븐스

(스탠포드대학교 William J. Perry Distinguished Fellow / 전 주한미국대사)

안희정 도지사님, 귀빈 여러분.

오늘 이런 중요한 회의에 오게 되어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 에서의 제 "고향"인 충남에 다시 오게 되어 기쁩니다.

저는 40년 전인 1975년 평화 봉사단 단원으로 한국 충남에 처음 오게 되었습니다. 자원봉사로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 왔지만,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한국과 동북 아시아. 그리고 외교에 대해 처음 배우게 된 곳이 바로 이 곳 충남입니다.

그 후 저는 미국과 중국이 외교 관계를 재수립한 직후 중국에서 외교관으로 일했고. 하국이 엄청난 정치적 변혁을 겪은 80년대 하국에서 일했으며, 주하 미국 대사 로서 뿐 아니라 지난 10년간은 6자 회담을 위해 한국에서 일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기는 했지만, 오늘은 앞에 나서 이야기하기보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배우고 싶습니다.

저는 충남 도민과 생동감 넘치는 황해 지역민간 대화를 발전시키려는 안 도지사

님의 구상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의지를 환영하는 바입니다.

제가 40년 전 충남에서 살면서 배운 한 가지는 이 지역의 역사에 대한 감상인데, 지금도 이에 대한 발견이 계속되고 이해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삼국 시대, 특히 부여에 수도를 둔 백제 시대 때 이곳이 지역 문화와 기술을 주고 받던 전송 벨트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현재의 일본, 한반도, 중국 간 상당한 교역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시대 초기에 현재 한국 서남해안의 사람들이 황해와 중일간 무역을 비공식적으로 통제했습니다.

또한 이 곳 부여에서 우리는 중국 당나라, 일본 군대와 더불어 신라와 백제 간 전투가 남긴 기념물을 여전히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래 전의 일이기는 하지만, 오늘 우리의 논의가 한국 입장에서 볼 때도 경쟁과 갈등 뿐 아니라 협력의 본거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습 니다.

다음 세대의 삶을 결정지을 오늘 주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직접 경험한 충남의 최근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이 식민 지배, 분단, 전쟁이라는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빠른 속도로 경제적 강국과 성숙한 민주주의로 부상했는지 이야기하는 것은 식상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1970년대의 한국 그리고 충남은 지금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바깥 세상, 즉 "국제화"와 유일하게 연결되었던 방법은 충남 지방 수도인 대전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 구매한, 심하게 검열된 타임지였습니다. 충남의 거리를 걸어 다니 기만 해도 서양인을 처음 보는 시민들의 눈길을 엄청나게 끌었습니다. 미국은 물론 이고 한국 밖을 나가본 사람을 보지 못했을 정도였습니다. 여권을 만들거나 외화를 구하는 일도 굉장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것들이 변했고, 제가 충남에서 살았던 2년 동안에도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경제 발전이 교육, 기회, 일자리라는 혜택과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제가 80년대에 돌아왔을 때는 피어나는 창의력과 에너지 속에서 민주화의 결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주한 미국대사로 일하면서, 충남을 방문하는 것은 언제나 특별한 기쁨이었습니다. 충남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발전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했는데, 충남은 그야말로 국제화가 되었습니다. 충남과 한국만 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충남을 둘러싼 지역, 특히 중국은 한국, 일본, 미국의 파트너이자 경제 대국으로 재부상 했습니다.

주말이면 황해에 나가 어부와 고기잡이 배, 들판의 농부를 보던 따뜻한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그분들을 볼 수 있고, 새로운 번영을 가져다주는 활발한 경제활동이 일어나고 있지만, 어려운 환경 과제에 직면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안보 문제도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합니다.

최근 일어난 가슴 아픈 연평도 포격과 2010년 천안함 침몰도 기억하실 겁니다. 이러한 사건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해양에서의 긴장 고조와 맞물려 황해와 주변 지역의 경제, 환경 문제는 물론이고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렵고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저는 오늘 회의와 후속 노력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대화가 시작되고 발전 하기를 희망합니다.

이러한 노력에 동참하게 되어 다시 한 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충남의 딸로서, 전 미국 관료로서, 미국이 정부 차원과 민간 차원에서 황해와 이를 넘어선 지역의 신뢰 구축과 긴장 완화, 커뮤니케이션 개선, 무역 발전과 공동 번영을 위해 기여 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Keynote Presentation

Promot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Building the Pan – Yellow Sea Community : From the Chinese perspective

Prof. Xu Jian (Senior Research Fellow, China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 Director, The Academic Council of CIIS)

Building the Pan - Yellow Sea Community now has becomes an increasingly urgent necessities driven mainly by two sets of reasons.

First of all, as far as the background is concerned, East Asia in general and Northeast Asia in particular have entered a new historical period which requires formulation of a new regional order transcending the limitations of the old thinking mode. The basic reason is concerned with the on-going fundamental change in the balance of power in this region, with the rise of China as the most prominent factor. New arrangements are needed to addressed both the opportunities and uncertainties in the fields of politics and economic development in this area in this new era. Major powers must re-addressed their mutual relations in a new way acceptable to all sides. Sino-US relations are obviously the most decisive. Sino-Japanese relations must also find a way out of their current stalled situation. Regional hot spot issues, be they the remnants of the cold war (such as the conflicting claims on territories in this region), must have more effective and reliable ways to tackle with. And moreover, against the back drop of the sluggish recovery of the world economy, enormous potentials arising in this region should be cultivated in a more systematic and more effective way in this

12

dynamic region, and this is beneficial to all parties in this area. In general, it is the consensus of this region that now it is time to consider reshaping regional order in a way beneficial to all the concerned parties.

Secondly, it is not only desirable but also possible to make new arrangements for regional order. There are many positive factors. Just to list the most significant. Major countries, such as China and the USA, have already committed themselves to looking for ways of building new type of their mutual relations that is expected to prevent the historic conflicts from happening. China and the US has reached important consensus over this necessity and are both making efforts in this direction, even though it is by no means an easy mission and takes time to fulfill. China-Japan relations are still ridden with many problems, but with the resumption of meetings of leaders form both sides, promising signs are increasing. In the economic field, China's "one belt one road" development strategy have created enormous new opportunities for expanding and deepening China's cooperation with other countries in this region and beyond. And on top of that, major economies in this region, especially China, Japan, and Korea, are highly complementary in terms of their economic structures. So those economies can cultivate huge potentials as long as they successfully remove political barriers from the road of promoting economic cooperation in one way or another, such as setting up trilateral FTA.

Therefore, building the Pan - Yellow Sea Community, from China's point of views, is a favorable way for making a new sub-regional order in Northeast Asia. This is an area where the most sensitive security issues in the Asia Pacific exist. This is also an area where most of the economic potential in Asia exist, because China, Japan, and Korea alone account for about 90% of the East Asia's economy. In other words, this area is featured with both the most complicated political contradictions and the most promising economic prospects in East Asia. Building sub-regional community in such an area is of special significance. It would pave the way for making long term stability and peace in Northeast Asia by gradually and flexibly involving all conflicting parties into a cooperative framework. It would contribute to building new type of relations between major countries, by providing a testing stone for re-addressing Sino-US relations and Sino-Japanese relations. It would set up an important positive example for other sub-regional arrangements in East Asia. In deed, if Northeast Asia can succeed in making a new order, there is no reason for other places in East Asia to be pessimistic for having similar ambition.

For above mentioned reason, in general terms, China would give full support to any efforts of promot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Pan - Yellow Sea area. With regard to adjacent provinces of China, local governments are all very keen to tap new opportunities with China's national strategy of "one belt one road". Therefore we can expect that Chinese provinces around the Yellow Sea (including the area of Bohai) would be very positive towards seeking a role to play in promot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region. Of course, in China as in other countries as well, the role allowed for local governments is mainly limited to commercial, social, and cultural fields, because the power of addressing political and especially security issues is concentrated in the central government. However, this do not mean local governments have no significance in the high-political fields. Social and economic cooperation have a pioneering role to play in nursing common interests and mutual understanding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 deepening and expansion of economic cooperation and social exchanges are very often the first step of making breakthroughs in political cooperation. In addition, by passing signals, sending messages, or warming up atmosphere, local contacts between different countries can also serve as a bridge for connections between central governments over certain extremely sensitive issues.

From China's point of views, the Pan - Yellow Sea Community should be open to all parties that have a stake in this region. Therefore, Japan must be included, especially in promoting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The US should also be included especially when security issues are concerned. The DPRK, Russia, and even Mongolia, when conditions mature, can also find role to play. Of course, at the initial stage, the key players would be countries which have territories adjacent to this area or have significance influence and hold strong desire for making such a new regional order in this area. In this sense, China, Korea, Japan are the key figures in the initial economic cooperation, while the US should be added to the list when the political and security

issues are put on the agenda.

Korea in general and Chungnam province in particular have a unique role to play in building the Pan - Yellow Sea Community. Geographic advantages are an important factor. Dynamic cooperation has already been established between Chinese coastal cities both on the Shangdong peninsula and the Liaodong peninsula and enterprises from Korea, I believe, including those from Chungnam Province. On the basis of achieved success and experience, China and Korea have more potential to tap in mutual cooperation, both at the national and local levels, especially by integrating China's "one belt one road"strategy and investment plans of AIIB with the need of development in this region. Korea has an irreplaceable role in the process of maintaining peace, keeping stability, and eventually seeking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Korea also has advantages in promoting trilateral economic integration among Korea, China, and Japan, and by using its special influence, in engaging China, the US, Japan, Russia, the DPRK for exploring ways of building new security architecture on the Korean peninsula or in Northeast Asia as a whole. In those process, Korea's local provinces, including Chungnam province, can play similar role like the Chinese coastal provinces mentioned above in both economic and political fields.

Regarding the feasible approaches of Chungnam province to the process, some suggestions can be made. First, combine both the schemes of promoting pragmatic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grand proposals on hard issues in the political and security fields. Do the easy things first while push forward with the difficult issues. Second, playing a bridging role between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by strengthening coordination at the two levels, especially over sensitive issues. Third, keep patience and flexibility. Don't expect to see the realization of the Pan - Yellow Sea Community on one stroke. Approaching that target with incremental achievements in different fields step by step. Last but not least, it definitely worth consideration of setting up some kinds of international forum to enhance intra - Yellow Sea cooperation, with different focuses or emphases each time, and widely involving participants from different circles, including academics, business people, and officials.

15

기조발제

환황해 공동체 구축을 위한 국제 협력 증진: 중국의 입장

쉬 지 엔

(중국 국제문제연구원 선임연구원 / CIIS 학술위원회 주임)

화황해 공동체 건설은 두 가지 주요 이유로 더 시급한 문제가 되었다.

먼저 배경을 살펴보면. 동아시아 그 중에서도 동북아시아는 구시대적 발상의 한계를 초월하는 새로운 지역 질서 형성이 필요한 역사적인 시기에 돌입했다. 기본 적으로 중국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부상함에 따라 이 지역에서 힘의 균형에 근본 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새로운 시대에 이 지역의 정치와 경제 발전의 기회와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준비가 필요하다. 주요 국가 들은 모든 국가가 납득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으로 상호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 중미 관계가 가장 중요함은 자명하다. 중일 관계 또한 현재 답보 상태를 벗어나야 한다. 한반도의 대치 상태를 비롯한 냉전의 잔재나 영토 분쟁처럼 새롭게 부상하는 논쟁 등 뜨거운 쟁점들이 좀 더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또한, 세계 경제의 더딘 회복을 감안할 때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거대한 잠재력이 역동적인 지역 내에서 좀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함양되어야 하고. 이는 지역 모든 당사국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모든 당사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 질서를 재편할 시간이 도래했다는 데 당사국들이 동의하고 있다.

두 번째로, 지역 질서를 재편하는 것은 바람직할 뿐 아니라 가능하다. 많은 긍정
적인 요인이 있는데, 중요한 점을 짚어보도록 하겠다. 중국과 미국 같은 주요 국가가 역사적 분쟁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유형의 상호 관계를 정립할 의지를 이미 표명한 바 있다. 중국과 미국은 이것이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지만 이러한 필요성에 합의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일 관계는 문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지만, 양국 지도자가 대화를 재개하며 희망적인 조짐이 보이고 있다. 경제 부문에서 중국의 "일대일로 (一帶一路)" 개발 정책이 이 지역 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 확산과 강화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 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중국, 일본, 한국 같은 주요 지역 경제국은 경제 구조면에서 상호 보완적이다. 그러므로 이들 국가들이 삼자 FTA처럼 경제 협력 증진에 있어 정치적 걸림돌을 성공적으로 제거한다면 엄청난 잠재력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환황해 공동체 건설은 중국 입장에서 동북 아시아에 새로운 서브 지역 질서를 구현하는 바람직한 방법이다. 이 지역에 가장 민감한 아태 안보 이슈가 존재하고, 아시아 경제적 잠재력의 대부분이 존재하기도 하는데, 이는 중국, 일본, 한국이 동아시아 경제의 약 90%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즉, 이 지역은 동아시아 에서 가장 복잡한 정치적 대립을 가진 동시에 가장 유망한 경제 전망을 가진 곳이다. 그러한 지역에 서브 지역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이 특히 중요한 것이다. 협력적인 틀 내에서 모든 대립 당사국을 점진적이고 유연하게 참여시킴으로써 동북 아시아의 장기적인 안정과 평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또한 중미, 중일 관계 재해결을 위한 시험대 역할을 함으로써 주요국간 새로운 유형의 관계를 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동아시아 다른 서브 지역에도 긍정적인 선례를 남길 것이다. 동북 아시아가 새로운 질서 정립에 성공한다면, 동아시아의 다른 지역도 그러한 야망에 부정적일 이유가 없는 것이다.

위에 언급한 이유로 중국은 환황해 지역 국제 협력 증진을 위한 모든 노력을 전적 으로 지원할 것이다. 중국 인접 지역의 경우, 지방 정부는 중국의 국가 전략인 "일대일로 (一帶一路)"가 창출할 새로운 기회를 활용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하이를 비롯한 황해 주변 지역은 국제 협력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다. 물론 여타 국가와 마찬가지로 중국 지방 정부에 허용된 역할은 주로

상업적, 사회적, 문화적 영역에 제한되는데, 이는 정치적 특히 안보 이슈를 해결 하는 힘이 중앙 정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지방 정부가 고위 정치 영역에서 중요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정치적 협력은 국제 협력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공통 이익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경제 협력과 사회적 교류 증진은 정치 협력에 있어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선구자적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신호와 메시지를 보내고 분위기를 개선하면서 국가 간 지역 접촉을 하며 극히 민감한 문제에 대해 중앙 정부를 연결하는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다.

중국 입장에서 환황해 공동체는 이 지역 모든 이해 관계자에게 열려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특히 지역 경제 협력 증진에 있어 일본이 포함되어야 하고, 미국은 특히 안보 문제에 포함되어야 한다. 북한, 러시아, 몽고도 조건이 마련될 경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물론 초기 단계에 있어 주요 국가는 이 지역에 영토가 근접한 국가나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 국가, 새로운 지역 질서 정립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가진 국가가 될 것이다. 이런 면에서 중국, 한국, 일본은 경제 협력의 초기 단계에서 주요 국가 이고, 정치, 안보 이슈 논의 시 미국도 포함되어야 한다.

한국 특히 충남 지역은 환황해 공동체 건설에 고유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지리적 이점이 중요한 요소이다. 산동반도, 랴오둥 반도 해안 도시와 충남 지방을 비롯한 한국 기업 간에는 이미 역동적인 협력 관계가 확립되었다. 성공경험을 발판 으로 중국과 한국은 국가, 지방 차원에서 특히 중국의 "일대일로 (一帶一路)" 전략과 AIIB 투자 계획을 지역 개발 필요에 통합함으로써 공동 협력을 활용할 좀 더 많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은 평화 유지, 안정성 유지, 그리고 한반도 통일 과정에 있어 대체할 수 없는 역할을 한다. 한국은 한중일 삼자 경제 통합 증진에서 이점을 가지고 있고, 특별한 영향력을 이용해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북한과 한반도 혹은 동북 아시아 전체에 대한 새로운 안보의 틀을 수립할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충남을 포함한 한국의 지방은 경제, 정치 영역에서 앞서 언급된 중국의 해안 지방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 프로세스에서 충남 지역이 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실용적인 국제 협력 증진 방안과 정치, 안보 영역의 어려운 문제에 대한 제안을 조합해 상대적으로 쉬운 문제를 해결하며 난제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다. 둘째, 특히 민감한 문제에 있어 공조를 통해 국가 정부와 지방 정부 간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다. 셋째, 인내심과 유연성을 가지는 것이다. 환황해 공동체를 한 번에 이룰 것이라 기대해서는 안 된다. 다양한 영역에서 차근차근 점진적인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매번 다양한 중점을 가지고 학계, 경제계, 공직계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광범위하게 참여시켜 황해 지역 내 협력 증진을 위한 국제 포럼을 설립할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Keynote Presentation

Talking Points Chungnam's Cross–Border Value Chain and Logistics Management in the Pan–Yellow Sea Rim

Ahn, Choong-Yong (Chairman, Korea Commission for Corporate Partnership)

- It is my great honor to participate in this Preparatory Meeting to launch the Pan-Yellow Sea Forum. I would like to start by thanking the Governor of Chungnam Province, Mr. Ahn Heejung.
- 2) The rapid rise of China has been key to the emergency of the Asian Century (ADB 2011) or the Renaissance of Asia. The center of the world economy is shifting to a Rising Asia. And China's PPP-based GDP has just exceeded that of the U.S. IMF data shows that China in 2014 recorded US\$18.98 trillion in PPP-based GDP while the U.S. recorded US\$18.12. But Asia's rise was by no means pre-ordained.
- 3) The most important players in the rise of the Asian Century are the Pan-Yellow Sea rim economies. The Pan-Yellow Sea is immediately bordered by China (the second-largest economy in the world,) Japan (the third-largest economy), South Korea (the 11th largest) and North Korea. Broadly, it could be extended to Taiwan, Hong Kong, and the Philippines. At the national level, and considering the current growth rate of key economies, the Pan-Yellow Sea economic circle is considered perhaps the most dynamic region in the world.
- 4) In an increasingly globalizing world, the theory of gravity model in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appears to be more valid than ever as an explanation for closer

20

economic interactions among neighboring provinces and major cities in the Pan-Yellow Sea area (C.Y. Ahn 2011.) Both regional value chains and production fragmentation in the Pan-Yellow Sea Sub-regions (PYSS) have been reinforced by the market forces of geographical proximity and differential factor endowments to generate closer economic linkages at the cross-border level.

- 5) Globalization is altering the world's economic landscape by accelerating the mobility of goods, people, capital, and ideas across national and regional borders to such an extent that borders have been rendered more permeable than ever. Borderless globalization could be accelerated as a result of the disappearance of trade barriers and regulations by suppressing the influence of the state on the economy.
- 6) In the process of globalization, regionalism has also prevailed as a reaction to the malfunctioning of multi-lateral trading systems and protection of local industries and interest. Preferential trading arrangements such as FTAs and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s have proliferated in many parts of the world. Case in point: The recently concluded TPP, ongoing RCEP, FTA negotiations among China, Japan, and Korea, and the conclusion of the Korea-China FTA. Regionalism as observed in the preferential arrangements needs to be a building bloc toward multilateralism, as embodied in the WTO. Open regionalism has been a recurring theme with many countries that are outside Asia but within the Pacific Basin, having joined a variety of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schemes.
- 7) Formal institutional mechanisms are also on the rise to facilitate ongoing natural linkages within PYSS. For example, the recently concluded Korea-China FTA is likely to accelerate cross-border flows of goods, services, and investment at the sub-regional level between the two countries. China being an immediate neighboring country, Korea's SMEs and their Chinese counterparts can expand their globalization drive for mutual gains.
- 8) Economically, the Pan Yellow-Sea Sub-region (PYSS), like other entities, such as the Mekong-Delta, etc., is often viewed as a collection of narrow sub-regional nods connected by various logistic modes. It is arguably the most important part of

Northeast Asia in terms of cross-border interaction and cooperation in view of the concentration of relative economic activity, built-up momentum, and prospects for future progress.

- 9) For regional development to embark on a new beginning, cross-border linkages have to be improved in a vision-led and ideally coordinated manner. The mutually beneficial linkages among neighboring countries could be furthered in a series of corridors connected by transport, maritime, air, and multimodal logistics. Also needed is the development of gateways centered on coastal metropolitan areas with seaport and airport access. The latter are multi-layered and linked with their hinterworld and hinterland (Peter Timmer 2011.) Logistics is the connecting thread in the resolution of corridors and gateways.
- 10) Economic corridors, covering smaller, defined geographical areas, straddle central transport arteries, such as a highway or a railway (Peter Timmer 2011.) These economic corridors emphasize bilateral rather than multi-lateral initiatives by focusing on strategic nodes at border crossings between countries. They have been very effective in enhancing cross-border economic interactions. Such maritime corridors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and South Korea and Japan with car-ferry services calling at many ports have been instrumental in opening small and remote connections.
- 11) The progression of the BESTOSHA (Beijing-Seoul-Tokyo-Shanghai) business square since the mid-1990s also reflects a process in which the leading metropolises are rapidly becoming linked but facing new challenges due to political and diplomatic conflicts.
- 12) To develop cross-border, inter-city, and inter-sub-regional cooperation, new and effective institutions must be nurtured. It should be emphasized that the internationalization of local governments is critical to promoting inter-local international cooperation. Bilateral linkages among China, Japan, and Korea must become trilateral linkages. Since the 1990s, there has been a dramatic increase in the number of inter-city linkages. By 2008, South Korea had forged 547 sister city

relations with neighboring countries. China had 1,586 such relations, and Japan, 1,562.

- 13) Both the deepening of globalization and regionalization as evident in the functionally increasing interdependences among neighboring countries made it necessary to identify a policy agenda and practical measures to enhance cross-border linkages and cooperation. It is very important to recognize how cross-border value chains and logistics management alter cross-border investment patterns and highly viable tools for sustainable regional growth. (C.Y. Ahn 2011.)
- 14) Chungnam Province can play a pivotal role in promoting PYSS development. Recently, the area has become a sub-regional hub of South Korea for manufacturing high-tech industries, especially for semiconductors, flat panel displays, automobile parts and materials, electrical battery systems, clean energy, medical devices, etc. Cross-border cooperation can be realized in transportation and logistics networks that allow people and goods to move freely in and out. In this regard, cargo and passenger flows in the Pyeongtaek-Dangjin, Daesan, Boryung and Taean seaports must be upgraded with modern logistics systems.
- 15) Chungnam Province must maximize its tremendous advantage of having direct and immediate access to the new administrative capital, Sejong City, and Daejon National Science Park. Both are in the province. Also there is the Pyungtaek-Dangjin seaport, which is growing rapidly as a major connecting nod to large ports in China and Japan.
- 16) Cross-border integration must concentrate on inter-city networking and the strategies of local administrations to maximize cooperation (OECD 2009). It should focus on building an integrated region from the bottom up. The following issues should be addressed by the Chungnam provincial government.
 - (1) Chungnam should coordinate with central and other local administrations to design cross-border linkages using existing sea, air, and railway routes, even though they are not in their administrative jurisdiction. In other words,

Chungnam should effectively develop inter-local linkages with Seoul, Daejeon, Incheon, Busan, Gunsan, etc. These cities need to be connected via the trans-Korea railways, trans-China railways, and trans-Siberia railways as a part of the Korean government's Eurasian Initiative.

- (2) Chungnam should more actively do outreach and cultivate exchange programs with cross-border provinces in China and Japan, in addition to two sister provinces in China and one in Japan. Chungnam is also encouraged to upgrade its relationship with its 14 friendship provinces in China, Japan, Vietnam, and Cambodia.
- (3) Chungnam should develop historic tourism resources to attract more tourists from Japan and China. For example, the historic legacies of the Baekje Kingdom need to be further cultivated for both international and domestic tourists.
- (4) It is recommended that Chungnam upgrade its sub-regional high-tech bases so they can be used to attract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is regard, industrial complexes should be developed as knowledge-intensive industrial clusters using big data and IoT.
- (5) In cooperation with the central government to push for open-sky agreements among neighboring countries, the Chungnam provincial government should support low cost carrier routes in and out of China and Japan, from and to Chungnam. For this purpose, a plan to upgrade Seosan airport with private funding might be worth considering in the mid- to long-term to accommodate rising flows of air cargo and tourists.
- (6) High-powered and skill-intensive manpower must be supplied within commuting distance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existing industrial complexes and to attract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is regard, universities and colleges within Chungnam province should be able to supply human resources.
- (7) With a shared vision of the PYSS, the Chungnam provincial government should identify a vision for cross-border cooperation and introduce joint pilot projects

with the local governments of China and Japan or a B2B framework by relevant private firms.

Finally, successful cross-border cooperation must go hand-in-hand with the institution building and evolving structures of governance. Cross-border cooperation between Busan and Fukuoka, and between Incheon and Shanghai, could be benchmarked to achieve a bottom-up approach, one that would need the central government's support in the form of the decentralization of power and budgetary assistance. An internationalization mindset is crucial as the Chungnam provincial government strives to play an active role in developing a prosperous and peaceful PYSS.

기조발제



안 충 영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 1) 환황해 포럼 출범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게 되어 대단히 영광입니다. 먼저 안희정 도지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2) 중국의 급부상은 "아시아 세기" (ADB, 2011), "아시아의 르네상스"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세계 경제의 중심이 "부상하는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IMF에 따르면, 중국의 PPP 기반 GDP는 2014년 18조 9천 8백억 달러로 미국의 18조 12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아시아의 부상이 이미 정해져 있던 것은 아닙니다.
- 3) 아시아 세기의 부상에 가장 중요한 국가는 환황해 지역 국가들입니다. 환황해는 중국 (세계 2대 경제), 일본 (세계 3대 경제), 한국 (세계 11대 경제),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고, 넓은 의미에서는 대만, 홍콩, 필리핀도 포함합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주요 경제국의 성장률을 고려할 때 환황해 경제구역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 4) 점점 글로벌화 되어가는 세계에서 국제 무역과 투자에 있어 환황해 국가 지역 주요 도시와 인접 지역간 밀접한 경제 관계를 설명하는 데 중력 모형이 그 어느 때보다 유효합니다 (C.Y. Ahn 2011). 환황해 서브 지역 (PYSS)의 지역적 가치

26

환황해시대를 위한 충남의 역할 (27

사슬과 생산 분화는 국경을 넘어 밀접한 경제 연계를 생성하려는 차별화 요인과 지리적 근접이라는 시장 요인 덕에 강화되고 있습니다.

- 5) 세계화는 국경의 경계를 무너뜨려 재화, 인력, 자본, 아이디어의 국가 간 이동을 가속화함으로써 세계 경제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국경 없는" 세계화는 국가가 경제에 주는 영향을 억제해 무역 장벽과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가속화 될 수 있습니다.
- 6) 세계화 관점에서 지역주의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다자간 무역 시스템에 대한 대응, 지역 산업과 이익에 대한 보호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FTA나 경제 파트너쉽 협정 같은 무역 특혜 협정이 세계 곳곳에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체결된 TPP, 현재 진행 중인 RCEP, 한중일 간 FTA 논의와 한중 FTA 체결이 바로 그 예입니다. 특혜 협정으로 간주되어 온 지역주의는 WTO에 구현된 것처럼 다자주의를 위한 초석이 되어야 합니다. "열린 지역주의"는 아시아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태평양 지역에 위치한 많은 국가들의 단골 주제로 이 국가들이 다양한 지역 경제 협력 계획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7) PYSS 내에서 자연적 연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공식적인 제도적 메커니즘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체결된 한중 FTA는 두 국가간 서브 지역 차원에서 재화, 서비스, 투자의 흐름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인접국 이므로 한국과 중국의 중소기업은 상호 이득을 위한 세계화 동력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 8) 경제적으로, 환황해 서브 지역 (PYSS)은 메콩 델타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물류 모드로 연결된 서브 지역 연계의 집합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이 지역은 상대적 경제 활동의 집중, 증가된 추진력, 미래 발전의 전망이라는 점에서 국가간 교류와 협력에서 동북 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지역 발전이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려면, 국가 간 연계가 비전을 가지고 이상적인 공조를 통해 개선되어야 합니다. 인접국간 상호 혜택을 주는 연계는 교통, 해상,

항공 등 다양한 수단의 물류를 통해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항만과 공항 접근성을 가진 해안 지역에 중점을 둔 관문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후자는 다차원 적이고 내륙지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Peter Timmer 2011). 물류는 회랑과 관문을 연결하는 선의 역할을 합니다.

- 10) 좀 더 세밀한 지리적 영역을 커버하는 경제적 회랑은 고속도로나 철도처럼 중앙 교통수단을 가로지릅니다 (Peter Timmer 2011). 이러한 경제적 회랑은 국가 간 전략적 노드에 중점을 둠으로써 다자간 이니셔티브 보다는 양자 간 이니셔티브를 강조합니다. 이는 국가 간 경제 교류 개선에 효율적 역할을 해왔 습니다. 소규모, 원거리 연결에 있어 다수 항만에 정차하는 카페리 서비스를 가진 한중, 한일간 해상 회랑이 중요한 역할을 해 온 것입니다.
- 11) 1990년대 이래 BESTOSHA (Beijing-Seoul-Tokyo-Shanghai) 비즈니스 스퀘어의 발전은 선두 도시들이 빠르게 연결되고 있지만 정치적, 외교적 갈등 때문에 새로운 도전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12) 국가 간, 도시 간, 서브 지역 간 협력 증진을 위해 새롭고 효율적인 제도가 설립되어야 합니다. 지역 간 국제 협력 증진에 지방 정부의 세계화가 중요함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한중일 양자 간 연계는 삼자 간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1990년대 이래 도시 간 연결이 급증했습니다. 2008년까지 한국은 인접 547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었고, 중국은 1586개, 일본은 1562개의 결연을 맺었습니다.
- 13) 인접국간 상호의존성이 증가함에 따라 세계화와 지역화가 진행되면서 국가 간 연계와 협력 개선을 위한 실용적인 조치와 정책 의제가 필요합니다. 국가 간 가치 사슬과 물류 관리가 어떻게 국가 간 투자 유형을 바꾸고, 이것이 지속적인 지역 성장을 위해 가치 있는 도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C.Y. Ahn 2011).
- 14) 충남 지방은 PYSS 발전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이 지역은 특히 반도체, 평면판 디스플레이, 자동차 부품과 재료, 전지 시스템, 청정에너지,

의학 기구 등 고기술 산업 생산에 있어 한국의 서브 지역 허브가 되었습니다. 국가 간 협력은 인적 자원과 재화가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교통과 물류 네트워크에서 실현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평택-당진, 대산, 보령, 태안 항만의 화물과 승객 흐름은 현대 물류 시스템으로 반드시 업그레이드되어야 합니다.

- 15) 충남 지방은 새로운 행정 수도인 세종시, 대전 과학 공원에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세종시와 대전 과학 공원 모두 충남에 위치하고 있습 니다. 또한 평택-당진 항만의 경우 중국과 일본의 대규모 항만을 연결하는 주요 항만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 16) 국가 간 통합은 도시간 네트워킹과 협력을 최대화하고자 하는 지방 행정부 전략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OECD 2009). 아래에서부터 통합된 지역 구축에 힘써야 합니다. 다음은 충남 지방 정부가 이를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들입니다.
 - (1) 충남은 중앙 정부, 기타 지방 정부와 함께 행정 관할에 구애 받지 말고 기존 해상, 항공, 철도 경로를 이용해 국가 간 연계를 설계해야 합니다. 즉, 충남은 서울, 대전, 인천, 부산, 군산 등과의 지역 간 연계를 효과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도시들은 한국 정부의 유라시아 구상의 일환으로 한반도 종단 철도, 중국 종단 철도, 시베리아 종단 철도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 (2) 충남은 현재 중국의 두 지방, 일본의 한 지방과 결연을 맺고 있는데, 이를 넘어 중국과 일본의 다른 지방들과 더 많은 교류 프로그램을 양성해야 합니다. 또한 중국, 일본, 베트남, 캄보디아의 14개 지방과의 친선을 강화 해야 합니다.
 - (3) 충남은 일본과 중국에서 좀 더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유서 깊은 관광 자원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외 관광객을 위해 백제의 유산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 (4) 충남은 서브 지역 고기술 기반을 업그레이드하여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

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빅 데이터와 사물 인터넷을 이용해 산업 단지를 지식 집약적 산업 클러스터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 (5) 인접국과의 항공 자유화 협정을 위해 중앙 정부와 협력하고, 충남과 중국, 일본 간 저가 항공사 루트를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증가하는 항공 화물과 여행객 수송을 위해 중, 장기적으로 민간 기금을 통한 서산 공항 업그레이드를 고려해볼 만합니다.
- (6) 기존 산업 단지의 경쟁력을 개선하고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고성능 기술 집약적 인력을 통근 거리 내에서 제공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충남 지역의 전문대학과 대학교가 인력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 (7) 충남 지방 정부는 PYSS라는 비전을 공유하며 국가 간 협력을 위한 비전을 마련하고 중국, 일본 지방 정부와의 합동 시범 프로젝트 혹은 관련 민간 회사와의 B2B 프레임워크를 도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국경 간 협력을 위해서는 제도를 구축하고 거버넌스 구조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부산과 후쿠오카, 인천과 상하이 간 협력은 상향식 방식을 통해 달성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산 지원과 힘의 분권화를 위해 중앙 정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풍요롭고 평화로운 PYSS를 발전시키는데 충남 지방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마음가짐도 중요합니다.



Session 1 동아시아 평화공동체의 모색

- **좌 장 _ 문정인**(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패 널_1. Searching for a Peace Community in Yellow Sea: The roles to be played by two Koreas, China, and the US Zhang Xiaoming(Professor,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and Deputy Director, Institute of International Relations, Peking University)
 - 동북아 안보구조와 평화공동체 구축의 가능성
 김 준 형 (한동대학교 국제어문학부 교수)

제1세션 박제등

Searching for a Peace Community in Yellow Sea: The roles to be played by two Koreas. China, and the US

Zhang Xiaoming (Professor,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and Deputy Director, Institute of International Relations, Peking University)

1. At least at present time, in comparison with the South China Sea and the East China Sea, the Yellow Sea is relatively calm and peaceful. There is an increasing tense geopolitical competition/conflict between the rising China and predominant US (and allied with Japan) in the South China Sea and East China Sea. So far there is not such a tense great-power relationship in the Yellow Sea.

But the Yellow Sea is far from being the sea of peace and cooperation. We have witnessed three serious military conflicts and tragic events between the North and South Korea in the beginning of this century. In 2002, as the 2002 Korea/Japan World Cup games was drawing successfully to a close, two North Korean patrol ships crossed the Northern Limit Line, or NLL, in the Yellow Sea. One of the North Korean patrol ships opened surprise fire at a ROK Navy speed boat. The naval clash resulted in the death of four ROK sailors, one missing, and 19 injured. One damaged South Korean PKM sank while being towed. From the North Korean side, one patrol ship was destroyed and the North Koreans also suffered heavy casualties as well. The ROK argued that The NLL on the Yellow Sea has functioned as a maritime boundary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since 1953, and has been reaffirmed via Article 11 of the South-North Basic Agreement of 1992. The act of provocation by the North

Korean patrol ships that crossed the NLL is regarded by the South as a flagrant violation of both the Military Armistice Agreement of 1953 and the South-North Basic Agreement of 1992. North Korea replied with a message specifying that "the ROK must abandon the NLL and the NLL removal issue is a priority for the North-South discussions. A more tragic confrontation between the South and North Korea in the Yellow Sea came in 2010. That was the sinking of a South Korean corvette, the Cheonan, on March 26, 2010, with the resultant death of 46 crew members. An investigation into the incident was organized by the U.S. and included experts from the U.S., South Korea, Britain, Australia and Sweden, but not from China and Russia which both border the Korean Peninsula. On May 20 of that year, the five-nation team released a report blaming a North Korean torpedo for the sinking of the Cheonan. North Korea denied the accusation and neither Russia nor China, excluded from the investigation, have concurred with the U.S. accusation. Again, in November of 2010, the North and South militaries exchanged fires in the Yellow Sea. A North Korean vessel started shelling two days after the South fired warning shots at the North ships crossing the maritime border. Residents on Yeonpyeong island, where four people were killed in November 2010, were evacuated to bomb shelters. A North Korean navy ship fired two artillery shells in the vicinity of a South Korean warship in the disputed waters near Yeonpyeong island on Thursday, and the South Korean vessel fired several rounds back in response.

The previous conflicts in the Yellow Sea mainly came from the dispute on the NLL between the DPRK and ROK, although there were occurrences of conflicts in the Yellow Sea between Chinese fishing boats and the ROK enforcement agents. Solving the conflicts between the two Koreas is not only in the hands of the North Korea, but also in the hand of the South Korea. Therefore, in order to avoid clashes in the Yellow Sea and turn the Yellow Sea into the sea of peace and cooperation, it is necessary for the two Koreas to reach a compromise on the NLL. And before the consensus on the NLL is reached, it is important for the two sides to take any provocative action against each other. Further more, holding high-level talks at Panmunjom, as the recent talks on the detonation of a land mine, 23-25 August of 2015, is also valuable.

2. To avoid two Koreas' conflicts and ensure the peace in the Yellow Sea seems to be the shared policy goal and strategic intension of the US and China. Unlike the South China Sea and East China Sea, as mentioned above, there has been so far not a tense competition or conflict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he Yellow Sea.

In addition, the two countries also have different strategic intentions in the Yellow Sea. As a rising power, China has been searching for the status of maritime power. 2015 China Defense White Paper for the first time officially acknowledged Chinese ambitions towards the open oceans. The Yellow Sea is very close to China's coast,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for the Chinese navy North Sea fleet to sail and operate to ensure China's maritime security. As the only superpower and the greatest maritime power in the world, the US wants to preserve its own supremacy over the region. To some Chinese analysts, the US has been worrying about being overtaken by a rising China in East Asia. US' pivot to Asia strategy or rebalancing to Asia strategy has been implemented by Obama administration. The military measures were concrete: put 60 percent of the navy in the Pacific, send Marines to Australia, enhance military co-operation with Singapore and especially Japan, get US troops back in the Philippines…

In the context of China's rise and US rebalance policy, the two countries might be suspicious of each other's intentions and actions in the Yellow Sea and get involved into the two Koreas' conflicts in this area. The possibility of US-China future confrontation in Yellow Sea might have a great deal to do with the two Koreas' confrontation in the Yellow Sea as the aftermath of the 2010 Cheonan incident demonstrated. At the Group of 20 (G20) summit in Toronto on June 27 of 2010, when U.S. President Barack Obama (in his own words) held a "blunt" conversation with China's President Hu Jintao, accusing him and his nation of "willful blindness" in relation to North Korea's "belligerent behavior." Upbraiding his Chinese counterpart, Obama stated, "I think there's a difference between restraint and willful blindness to consistent problems." President Hu and the Chinese government as a whole would be fully justified in suspecting that mounting U.S. threats are aimed not only (and perhaps not so much) against North Korea as against China itself. Delayed until after the United States achieved a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statement on July 9 of 2010 condemning the sinking of a South Korean warship in March of 2010, Washington's plans for naval maneuvers in the Yellow Sea near Chinese territorial waters were forging ahead. Confirmation that the U.S. nuclear-powered aircraft carrier USS George Washington will participate has further exacerbated concerns in China and raised alarms over American intentions not only vis-a-vis North Korea but China as well. The presence of a U.S. nuclear aircraft carrier and scores of advanced American and South Korean warplanes off the coast of China in the Yellow Sea qualitatively and precariously raised the level of brinkmanship in Northeast Asia.

3. Although China and the US are not the center players in the Yellow Sea, but they might get involved into the two Koreas' conflicts there. So the resolution of the two Koreas' conflicts, including the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s the key to avoid confrontation between China and the US in the Yellow Sea.

In order to deal with potential conflicts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US and China, in the Yellow Sea, a code of conduct for the two countries' navies in the Yellow Sea is needed and should be strictly followed.

4. The suggestions for the creation of peace community in the Yellow Sea: The North and South Korea reach consensus on the NLL; China and the US support the efforts by the two Koreas for dialogues and reconciliation; appropriate management of crises in the Yellow Sea, etc.

제1세션 발제문

동북아 안보구조와 평화공동체 구축의 가능성

The East Asian Security Structure and Building the Peace Community

김 준 형

(한동대학교 국제어문학부 교수)

격랑속의 한반도 및 동북아

세계역사에 있어 지정학적 저주라고 불리는 곳이 두 군데 있는데, 하나는 발칸 반도, 다른 하나는 한반도이다. 반도 국가는 과거 로마처럼 강성할 때는 대륙과 해양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유리한 위치가 될 수 있지만, 약할 때는 대륙과 해양의 강국들 사이에 끼어 어려움을 겪게 된다. 양쪽 중 하나라도 팽창전략을 택할 경우 에는 반도가 가장 먼저 침략의 대상이 된다. 그야말로 동네북, 또는 현관에 깔린 매트(doormat)가 되는 것이다. 『강대국의 비극』의 저자인 미어샤이머도 폴란드와 함께 한국을 세계 지정학위치 가운데 최악인 국가라고 말했다.¹⁾ 미국의 외교전문지 『폴린 폴리시(Foreign Policy)』 2013년 1월호의 특집기사는 "발칸화하고 있는 동아시아"라는 제목을 달기도 했다.²⁾ 브레진스키 역시 거의 2012년 저서 『전략적 비전(Strategic Vision)』에서 세력변동에 따른 지정학적 취약국가로 파키스탄, 대만과 함께 한국을 꼽았다.³⁾

^{1) 『}강대국의 비극』의 저자인 시카고대학의 Mearsheimer는 폴란드와 함께 한국을 세계 지정학위치 가운데 최악이라고 말했고, Foreign Policy 잡지는 아시아의 발칸화를 말하기도 한다. "국제정치 대가 미어샤이머 교수에게 '한국 미래' 묻다," 『중앙일보』, 2011. 10. 10; Kevin Rudd, "A Maritime Balkans of the 21st Century?" *Foreign Policy*, January 30, 2013.

²⁾ Kevin Rudd, "A Maritime Balkans of the 21st Century?" Foreign Policy, January 30, 2013.

Zbigniew Brzezinski Strategic Vision: America and the Crisis of Global Power, (New York: Basic Books, 2013).

동아시아에서 경제적 상호의존도는 나날이 증가하는 반면, 정치 및 안보분야의 협력수준은 매우 낮을뿐더러 영토분쟁, 군비경쟁, 역사왜곡논쟁, 핵무기개발 등 지역안정을 위협하는 아시아패러독스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명박정부 이후 악화일로의 남북관계는 물론이고 동북아의 세력재편과 이에 따른 한·미·중·일 4국의 치열한 국익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한국외교는 현실적인 대안보다 공허한 외교수사나 제안 또는 구상에 머무는 경우가 만다. 따라서 단순히 제안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시아 패러독스를 내세우기 이전에 우리가 당면한 딜레마 상황에 대한 보다 철저한 인식과 분석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3중 패러독스

한반도와 그 주변의 상황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분단구조는 그대로이고, 탈냉전 도래 사반세기를 넘어가고 있음에도 진영대결구도는 해소되지 않은 상태 에서 미국의 영향력 약화와 일본의 침체, 그리고 중국의 급격한 부상이 겹쳐지면서 불안정성이 점점 증대되었다. 박근혜대통령은 아시아패러독스만 강조했지만 한반도 주변은 최소한 3중의 패러독스 상황이 중첩적으로 교차하고 있는 것이 보다 본질에 가까운 그림일 것이다.

3중 패러독스 상황에서 가장 거시적 차원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개되고 있는 상호의존 증대와 갈등심화의 역설현상이다. 미국과 중국 간의 교역량이 2014년 통계로 5천9백억 불을 넘었으며, 중국은 캐나다에 이어 미국의 두 번째 최대 교역국 이며, 미국 역시 EU에 이어 중국의 두 번째 최대 교역국이다. 미국은 중국 상품의 최대 수입국이며, 중국은 미국 상품 수출의 제3대 수입국이다. 또한 중국은 미국 국채 1조2천5백억 달러를 보유한 최대 채권국이며 이는 중국 외환보유고의 36%를 차지한다. 미국 소비자는 값싼 중국 상품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중국은 미국이 주도해온 자유주의 세계질서 안에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반면에 상호 군사적 불신 역시 시간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아시아재균형전략을 자신을 포위하는 전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미사일방어체제의 궁극적 목표가 자신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중국은 지난 20년간 연평균 10% 이상의 군사비를 꾸준히 증강해 왔고, 핵잠수함, 스텔스기, 항공모함, 대항모미사일, 중장거리탄도미사일 등의 첨단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해왔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미국은 지역안정을 위협 하는 행보로 판단한다. 엘리슨이 제기하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이 21세기 미중사이 에도 일어날 수 있다.⁴⁾ 미중 양국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불행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지만 상호신뢰가 충분하지 않고, 국제정치를 특징짓는 권력외교의 속성상 갈등을 피하기 쉽지 않다.⁵⁾

패러독스의 두 번째 층위는 아시아패러독스다. 전 세계가 동아시아를 경제발전의 새로운 엔진으로 이해하고 관심을 돌리고 있음에도, 정작 중심 국가들인 한국, 중국, 일본의 갈등과 대립은 확대일로에 있는 역설이 전개되고 있다. 1990년대 초 냉전이 붕괴되면서 미소대결구조가 사라지고, 1990년대 말 아시아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아시아국가라는 공동정체성이 확대되는 조짐이 없지 않았다. 따라서 지역협력이나 다자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활발하게 모색되었다. 그러나 2008년 미국과 유럽의 금융위기와 더불어 미국의 침체와 중국의 부상이 겹쳐지면서 지역공동체 구축의 논의는 약화되고 세력재편에 따른 갈등이 부상했다. 이런 현상을 가중시키는 것은 중일간의 역내 소(小)패권경쟁이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일본 역시 국력의 침체문제에 직면해있는데, 중국의 부상이 주는 위협은 일본에서 훨씬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진다. 특히 중일사이에는 역사논란과 영토분쟁으로 정치지도자 들의 대화는 단절되고, 양국의 국민감정은 악화된 채로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아베정부는 이를 적극 활용하여 미일동맹에 의한 대중 세력균형전략을 본격적 으로 구축하기 시작한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패러독스는 한반도의 남북한에서 작동한다. 분단구조의 지속과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로 말미암은 안보위협으로 동맹 강화의 필요성이 증가하는 동시에 남북관계 개선의 요구도 커지고 있다. 탈냉전의 기회를 바탕으로 초기에는

⁴⁾ 엘리슨은 기원전 5세기 펠로폰네소스전쟁의 원인이 급부상한 아테네와 이에 두려움을 느낀 기존 패권 스파 르타의 충돌인데, 세력전이의 불안한 과정에서의 현상타파가 역사를 따라 반복적으로 일어났다고 지적한다. 1500년 이후 세력전이 현상이 16번 있었는데, 그 중 12번이 전쟁으로 치달았다. Graham Allison, "The Thucydides Trap: Are the US and China Headed for War?" *The Atlantic*, September 24, 2015.

⁵⁾ 공격적 신현실주의자들은 미국이나 중국의 정책적 선택에 관계없이 중국의 존재와 부상자체가 안보딜레마를 초래하기 때문에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John Mearsheimer,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New York: W. W. Norton and Company, 2001).

반세기 분단질서를 극복하기 위해 남북이 관계개선을 모색하고 평화체제 구축을 모색했으며 상당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지금은 거의 모든 것이 무산된 상태다. 분단구조를 해소하기는커녕 심화시키고 상호적대감은 증폭되었다.

동북아 안보구조와 한국의 선택

3중 패러독스는 한국의 미래를 규정할 핵심변수로 작동한다. 한국은 중국을 최대 교역국으로, 미국을 최대 안보 파트너로 맺고 있기 때문에 미중갈등이 격화 될수록 딜레마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 더 심각한 문제는 남북관계의 악화가 동북아 전체의 패러독스를 강화시키는 땔감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핵개발과 호전적인 도발의 책임이 크지만, 미국과 일본은 물론이고 한국도 대화를 통한 해결보다는 북한을 압박하고, 이를 군사동맹 강화나 진영외교를 정당화하는데 이용하면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도 사실이다.

미국의 아시아전략이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견제로 모아지면서 한미일 삼각군사 협력이 강화된다. 하지만 이는 다시 북·중·러의 대응을 초래할 수 있다. 중미의 높은 수준의 상호의존을 감안하면 과거 냉전체제가 그대로 재현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미중은 지속적으로 한국을 시험대로 삼아 상대의 의도를 파악하고자 할 것이다. 한국은 미중전략의 '테스트베드(test bed)'가 되는 셈이다. 이미 방공식별구역, 사드배치, 집단자위권 허용, 그리고 최근의 남중국해에 대한 한국역할론 등이 바로 그런 함의를 가지며, 앞으로도 유사사례들이 반복 심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⁶⁾ 현재 세력전이에 대한 미국의 전략이 대중봉쇄를 위해 미일 동맹을 우선적으로 강화하면서 한국의 배타적 진영선택을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다. 그 결과 최근 미국과 일본의 한국에 대한 외교적 언행이 이례적으로 거칠어지고 있다.⁷⁾

^{6) 2015}년 9월 박근혜와 오바마의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오바마는 남중국해에서의 한국의 역할을 주문했다. Kang Seung-woo, "South China Sea dispute overshadowing summits: Seoul under pressure to take stance between Washington and Beijing," *The Korea Times,* October 29, 2015.

⁷⁾ 집단자위권의 해석, K-FX 사업, 그리고 남중국해에 대한 대한국 압박이 대표적인 예다. 한미동맹과 미일 동맹은 지금까지 일종의 유사삼각동맹으로써 대미관계와 동북아의 정세변화에 따라 때로는 보완재 때로는 대체재 관계였다. 물론 미국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양국이 보완재로 기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한미, 미일, 그리고 한일 관계에 갈등이 발생할 경우 동맹의 선호도가 실제로 달라지기도 하고, 또는 선호도를

더욱이 최근의 국제정치에서 대외정책이 국내정치에 끼치는 영향력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특히 동북아 유관국 6개국은 내부단결과 권력공고화를 위해 강경 하고 민족주의적인 대외정책을 우선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갈등구조에 편승하려는 유혹이 커지면서 역내국 사이의 신뢰구축이 어려워진다.⁸⁾ 북한의 선군 정치, 일본의 우경화 드라이브, 러시아의 반미정책, 중국의 신민족주의, 미국의 중국위협론, 한국의 안보포퓰리즘 등도 모두 유사한 맥락이다.⁹⁾ 그 중심에 남북 관계의 악화가 놓여있다. 단순히 분단을 해소하지 못할 뿐 아니라, 더 심화시키고 상호적대감은 더 커졌다.¹⁰⁾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한미동맹에 있어 군사적 요소가 지배하고 있으며 남북은 물론이고 동북아 전체의 안보딜레마와 군비경쟁이 초래 되고 있다. 물론 북한의 도발과 호전적 행동의 책임이 크다. 그러나 한미양국이 대화를 통한 해결보다는 북한을 압박하고, 이를 동맹 강화나 진영외교를 정당화 하는데 이용하면서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¹¹⁾

구조 및 지정학적 변수를 함께 내포한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하락에 따른 복잡 하고 불안정한 동북아의 상황에서 한국의 미래는 또다시 국내정치적으로는 기득권의 인질이, 그리고 국제정치적으로는 패권경쟁의 인질이 될 위험에 처해있다. 조건과 양상이 매우 다르기에 역사의 반복을 단정적으로 언급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 지만, 구한말 강대국의 세력재편에서 이미 크게 희생당했던 경험을 반복할 수 없다는 명제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미중대결구조가 굳어져서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조성하는 보다 능동적인 외교를 전개해야할 시점 이다.

동맹국을 길들이는 카드로 사용했다.

Charles A. Kupchan, "From Enmity to Amity: Trust's Part in US Foreign Policy," *Global Asia*, Vol. 8, No.3, Fall 2013, p. 31.

Joon Hyung Kim, "Letting Off Steam: South Korea's Role in Northeast Asia," *Global Asia*, Vol. 8, No. 1, Spring 2013. pp. 25-26.

¹⁰⁾ 장달중, 이정철, 임수호 『북미대립: 탈냉전 속의 냉전대립』(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12), p. 41.

¹¹⁾ 커밍스는 남북한을 두고 "여전히 싸움에 몰두하고 있는 형제(fighting brothers)"라고 표현한다. Bruce Cumings, *The Korean War: A History* (New York: The Modern Library, 2011).

한국의 대응전략

한국정부의 외교는 무기력하지만 아직 기회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미중이 대결시나리오를 확정한 것은 아니며 한국 역시 편을 가르고 진영을 확고하게 선택 해야만 하는 상황까지는 아니다. 일본은 중국을 이미 잠재적 위협으로 규정하고 세력균형전략에 나섰지만, 한국의 전략은 아직 중국의 협력을 통한 북한문제 해결과 경제교류의 혜택을 공유하는 헤징전략(hedging strategy)에 가깝다. 한일관계 악화로 미국이 바라는 한미일 삼각동맹을 통한 대중봉쇄망 구축이 지연되는 것이나, 중국이 한국의 완충역할에 일정정도 기대를 하고 있다는 점은 작지만 운신의 폭이 되고 있다.

결국 열쇠는 남북관계 복원이다. 우선 정부의 신뢰외교가 북한 길들이기 차원의 원칙론을 넘어 과정을 중시하는 신뢰구축외교로 가야 한다. 2015년 8월 휴전선 목함 지뢰 폭발로 다시 촉발되었던 남북한 대결상황은 남북고위급의 마라톤협상 끝에 8월25일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냈다. 또한 한국정부가 중국의 전승절에 미국의 동맹국으로서는 유일하게 참여함으로써 강화되어오던 진영대결을 완화 시키는 노력을 했던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북한이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할 수도 있었던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고 넘어갔던 것도 긍정적인 흐름이다. 이런 흐름을 한국이 활용해서 협력적 분위를 이어가야 한다.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은 국내정치일정과 함께 여러 면에서 남북문제나 6자회담의 재개에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힘든 상황이다. 현재 한국만이 주도권 행사가 가능하다. 박근혜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이 북한을 압박하기위한 북한붕괴 및 흡수통일론의 재연이거나, 또는 국내용 정치담론의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실현 의지와 방법들을 장착한 정책담론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반도 분단의 냉혹한 현실에서 평화담론이 비현실적 이상주의라는 비판을 끊임 없이 받고 있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다. 조셉 나이의 말처럼 평화는 우리들이 숨 쉬는 공기와도 같다.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모르지만, 없어지면 모두가 죽음의 고통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평화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힘써서 얻고 또 지켜야 할 가치다. 지난 수년간 안보담론이 힘을 얻을 수밖에 없지만, 시간이 갈수록 피로현상과 함께 평화에 대한 열망이 커질 수밖에 없다. 강경한 대외정책과 안보담론이 각 정부당국자들의 인식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신냉전적 동맹 및 진영체제의 부활을 약화 또는 저지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자화인데, 동북아의 안보구조나 현재 상황이나 모두 여의치 않다. 박근혜정부의 동북아평화구상을 포함해서 현재 다자체제에 대한 제안들은 많지만 대부분 외교적 담론으로 그치고 있으며 실효성이 크지 않다. 한반도 진영대결의 중심을 형성하고 있는 미국과 북한이 참여하는 다자체제여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데 이 부분의 매듭이 풀리지 않고 있다. 6자회담이 재개되지 않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다. 현재 로선 1.5트랙이나 트랙 II를 먼저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도 미국과 북한의 참여가 관건인 것은 마찬가지다. 같은 맥락에서 트랙 2인 동북아 시민사회의 연대 역시 적극적으로 도모해야 한다.

서해의 함의와 충청남도의 역할

동북아의 진영구도를 극복하고 평화를 지향하는 상징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실천 분야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서해이다. 최근 남중국해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미중의 기싸움은 서해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중국이 지난 2년간 스프래틀리 군도 중 7개의 암초를 연결해서 인공섬을 만들면서 중국의 주권지역임을 강조하고 나서자, 미국은 항행의 자유를 내세우면서 갈등국면에 돌입했다. 단순한 신경전과 언술공방을 넘어 미국은 인공섬 근해로 군함을 파견했고, 중국은 곧바로 대응하는 등 군사충돌의 위험까지 커지고 있다.¹²⁾ 아시아의 바다를 놓고 벌인 미중의 기싸움이 처음은 아니다. 2010년 천안함 침몰사건 이후에 미국이 항모 조지워싱턴호의 서해 진입을 놓고 일련의 공방을 벌였었다. 이는 센카쿠(댜오위다오)의 동중국해와 스프 래틀리의 남중국해에서의 갈등이 고조되는 것처럼 서해 역시 언제든지 미중간의 갈등의 바다로 바뀔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중국으로서는 서해가 자기의 앞바다

¹²⁾ 미국은 구축함과 항공모함에 이어 전략 폭격기까지 남중국해에 파견했으며, 중국은 이에 맞서 남중국해 지역을 관할하는 남해함대 항공병 부대 소속 젠-11B 전투기를 베트남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남중국해 융싱다오에 배치하며 실전 훈련을 벌였다. 일부 중국군 장성들은 인공섬에 군대를 주둔시켜 미국에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라고 할 수 있으므로 더욱 강경해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과거와는 달리 최근 에는 서해에서의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도 매우 민감하고 있다.

게다가 서해는 1999년 연평해전부터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까지 남북한의 군사충돌이 5차례나 반복되었던 곳이다. 2007년 노무현대통령과 김정일국방위원 장의 10.4선언으로 공동어로구역에 합의하면서 잠시 '평화의 바다'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으나 이후 남북관계악화와 더불어 남한의 국내정치에 매몰되면서 무위로 끝나버렸다. 이 지역은 또한 북·중간에도 미묘한 갈등의 지점이 될 수 있는 곳이다. 북한이 중국 어선을 향해 발포한 적도 있고, 나포해 간 적도 있다. 이렇게 남-북-미-중의 갈등의 발화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는 서해를 하루빨리 다시 평화의 바다로 회복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발판으로 아시아평화공동체 구축까지 가능해지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의 국내정치역학과 남북관계를 생각하면 쉽지는 않겠지만 다시 공동어로구역으로 부활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고, 4개국 공동으로 '해양 비무장 지대(Maritime DMZ)'를 선포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한국의 양보도 중요하지만 미국의 양보가 더 중요하다. 한국전쟁 이후 미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획정된 북방한계선(NLL)은 현재의 동아시아 안보구도에서 대중견제를 위한 요긴한 전략적 수단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한차례 남북이 합의한 경험도 있고,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보다 미국의 입김이 아직은 가장 덜 미칠 수 있는 곳이라는 점에서 한국이 설득하기에 따라 불똥이 번지기 전에 불씨를 차단 하는 장치들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여기서 충청남도의 틈새 역할이 중요하고 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남북관계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6자회담이 중단된 상황에서 중앙정부를 대신해서 충청남도가 1.5 트랙의 다자포럼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충남도가 추진 중인 '환황해포럼(The Pan-Yellow Forum)'이 일종의 기함(flagship)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진영대결과 전쟁의 바다가 될 수도 있는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자는 목표를 세우고, 관련국들의 중앙 및 지방정부 관료들과 학자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6자 회담의 모티브가 될 정도로 비교적 성공적이었던 외교 및 국방 분야의 정부 관료와 학계인사들이 개인자격으로 참여해온 동북아안보협력대화(NEACD)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¹³⁾

충남도의 구상이 공허한 외교수사나 수많은 제안 중의 하나에 머물지 않아야 할 것은 불문가지이다.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정세는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딜레마적 상황으로 기울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레토릭이나 이상주의적 외교담론보다는 현실을 보다 냉정하고 심각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어렵지 않은 문제라면 애초부터 패러독스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참여국들의 실천의지와 자발적 헌신이 매우 중요한데 이기적 국익추구가 지배하는 국제정치에서 이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역사적 경험이 무수 하게 증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현실주의적 냉소주의에 빠져 한걸음도 전진하지 못 하는 것은 더욱 수용할 수 없다. 지금도 적지 않은 정상간 회담이나 국제회의, 그리고 여러 가지 외교 구상과 제안들만 늘어날 뿐, 실제로는 힘을 발휘하지 못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가 당면한 딜레마상황에 대한 보다 철저한 인식과 분석을 전제하면서도 비전을 향한 실천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반복 적인 분쟁의 경험을 지니고 있으며, 현 구도상 확산가능성을 품은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자는 구체적인 목표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일단 1.5 트랙의 협의체를 만들어 협력방안들을 논의하고, 이를 관련국 정부들의 공식적인 합의로 발전시킨 이후, 다시 이를 발판으로 동아시아평화공동체로 나가는 3단계 전략을 채택할 수 있을 것이다.

¹³⁾ NEACD 홈페이지 참조(http://www.4au-pair.com/tag/neacd 검색일 2015년 10월 2일)



Session 2 환황해 경제와 환경 협력

좌 장 _ 안충영(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 패 널_1. Promoting Environmental Cooperation on The City-to-City (C2C) Level: Perspectives of City Diplomacy Shunji Cui(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Zhejiang University)
 - Local initiatives in Japan-China-Korea environment cooperation: The Frontier and the Challenges Yukiko Fukagawa (Professor, School of Political Science & Economics, Waseda University)
 - 환황해시대의 충남 경제발전 전략
 이 승 훈 (세한대학교 총장)
 - 충남 해양수산정책이 지향하는 새로운 환황해시대 허재 영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 환황해시대와 충남의 對중국 전략
 박 인 성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중국연구팀장)

제2세션 발제문

Promoting Environmental Cooperation on The City-to-City (C2C) Level: Perspectives of City Diplomacy

Shunji Cui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Zhejiang University)

Paper For

The "Pan-Yellow Sea Forum Preparatory Meeting"

Hosted by Chungnam Provincial Government, Republic of Korea Co-Organized by

Chungnam Institute and East Asia Foundation Sponsored by The Hangyeorye

Date: November 20 (Friday), 2015 Venue: Lotte Buyeo Resort

(Chungcheongnam-do, Republic of Korea)

Shunji CUI is an Associate Professor of International Politics and Deputy Director in th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School of Public Affairs at Zhejiang University, Hangzhou, China. She is also a Research Fellow at Zhejiang University's Center for Non-Traditional Security and Peaceful Development Studies. She was awarded a British Academy Visiting Fellowship in 2010 at LSE, UK; and a Fulbright Scholar-in-Residence in 2012-13 and taught at Marian University, USA. Her research has dealt with International Security, Human Security and Non-Traditional Security cooperation with reference to China-Japan and East Asian relations. Her publications include: 'Conflict Transformation: East China Sea Dispute and Lessons from the Ecuador-Peru Border Dispute,' Asian Perspective (2014); 'Human Development and Human Dignity: Rethinking the Concept of Human Security', Journal of International Security Studies (2014, in

49

Chinese); 'Beyond History: Non-Traditional Security Cooperation and The Construction of Northeast Asian International Society,'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2013); and 'Problems of Nationalism and Historical Memory in China's Relations with Japan,' *Journal of Historical Sociology* (2012).

City diplomacy as part of public diplomacy has emerged as an important exercise of state's soft power and foreign policy strategi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is phenomenon reflects the new reality of changing in global landscape and the emerging new approaches to Global Governance that best captured by a 'community of practice' anchored in the joint performance of public engagement with global civil society. The premise of this paper is that city diplomacy can make positive contributions to build a prosperous peace community surrounding the Yellow Sea; and that environmental cooperation on the city-to-city (C2C) level can become a starting point and an important process of city diplomacy. This paper attempts to identify, first, what is city diplomacy and why it is now? It, then, explores the possibility of its practices and viabilities through an examination of cooperation in the area of environment.

City Diplomacy as a New Form of Foreign Policy and Global Governance

City diplomacy is defined as the 'institutions and processes by which cities engage in relations with actors on an international political stage with the aim of representing themselves and their interests to one other (Van der Pluijm 2007: 11). In other words, it is a way of managing international relations with decentralization, in which cities are the key actors, and on the international stage local governments have become very active. This is because globalization has reduced the capacity of state's policy, leaving space for the city's strategic governance role. As Acuto (2010: 19) argues, 'cities, incapable of military action, are thus, diplomatic actors that rely heavily on the power of association nested in coalition-making and cross-national networking, which they

themselves inspire through catalytic diplomacy.'

Since the last quarter of the 20th century, city diplomacy has gained increasing attention in international society, and the significance is expanding in recent years. The first-ever Chicago Forum on Global Cities was held in Chicago in May 2015. It was launched by the 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 and the Financial Times, which brought civic, business, cultural and academic leaders from London, Beijing, Paris, Dubai, Singapore and beyond to discuss the future of global cities. City diplomacy is also gaining growing attention within China and is becoming important exercises of China's relations with other courtiers. On 15 May 2014, for the first time the concept of 'city diplomacy' was put forward by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in his speech marking the 60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the Chinese People's Association for Friendship with Foreign Countries (CPAFFC). The initiative of 'One Belt and One Road' strategy by Chinese government has created even greater potential for cities to play significant roles.

Many people (Zhao et al 2014) believe that city diplomacy as a channel of exchange even between great powers, such as between China and US, can provides opportunities for more meaningful and beneficial interactions. This is because the people-driven city diplomacy is more stable and flexible than high-level political or economic forms of diplomacy. City diplomacy has also made the local partnership such as 'sister cities' and friendship cities' blooming, and some have resulted in real-world benefits, especially in the area of environmental cooperation, such as US Portland's partnership with Chinese city Kunming to share clean technology and green development strategies. Indeed, environmental cooperation is one of the important areas that driving city diplomacy into global significance.

Environmental Cooperation on The C2C Level

The "Climate Leadership Group" (C40) launched in October 2005 through an initiative of the then-Mayor of London Ken Livingstone, is considered as one of the most

successful city diplomacies. The summit gathered 18 'large cities' led by the British capital with the intent of tackling climate change from below. With London acting as a catalyst, the group sought to exercise leadership in reducing emissions and to stimulate both private and governmental action. A year later, building on the momentum it held a four-mayor meeting among of London, Berlin, Moscow, and Beijing (known as M4). The coalition has successfully attempted to start a long-term international collaboration on environmental governance, which expanded to a much wider membership now known as the Climate Leadership Group.

The development illustrates the ability of cities to cut across the multiple layers of global governance by developing transnational linkages between local governments. Cities in this case have been able to constitute 'groups of friends', as well as to interact with international bodies, such as the UN Framework on Climate Change's COP11 and MOP1 rounds in Montreal in December 2005. Thus, the then-Deputy Mayor of London even argued in the first summit, 'leadership from national governments is crucial in tackling climate change, but when it comes to practical action on the ground cities are centre stage.'

Although in terms of scale, they may not have reached global significance, local governments within China and Japan have also played an important role in promoting reg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The most visible outcome has been the expansion of Sino-Japanese environmental cooperation into the local level, especially under the Environment Model City Project. The Environment Model City Project has been operating since 1998 – in which Chinese cities such as Guiyang, Chongqing and Dalian were selected as model cities, and Japan contributed loans of about 30.7 billion yen to the model city programme. Thus, over the years, alongside central governmental cooperation, Sino-Japanese local initiatives in environmental cooperation have been expanding. By 2003, about 193 Chinese cities from 26 provinces were 'twinned' with Japanese partners as sister / friendship cities – eg., Dalian / Kitakyushu (大连-北九州),
Chongqing / Hiroshima (重庆-广岛), and Shanghai / Yokohama (上海-横滨). Environmental protection often centres on the city-to-city (C2C) projects. Of course, outcomes have varied but the cooperation between Dalian and Kitakyushu has been notably successful, especially under the Kitakyushu Initiatives for a Clean Environment. As a result, Dalian was given a 'global 500 environmental city' award by the UNEP in 2001, and has won many national awards in landscaping, environment improvement, sanitation and housing.

In addition, Sino-Japanese environmental cooperation has involved extensive exchanges of people. For example, in the area of technical cooperation the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 has accepted trainees from China; by 2003 fiscal year (FY2003) the total number reached 15,000 trainees. By the same date, the Association for Overseas Technical Scholarship (AOTS) had also accepted more than 22,000 trainees and JICA had sent 5,000 experts to China. There are also many young Japanese volunteers working in China (FASID 2005). Thus, the processes of China Japan environmental cooperation, though largely driven by government high-level initiatives, have evolved on a variety of levels, in which NGOs, civil societies, and local governments have played increasingly important roles.

In conclusion, the cases of global cities environmental governance, and the Environment Model City Project demonstrate, cities are far from being 'below' than any other institutional layer. On the contrary, as the C40 example shows, local actors can become the agenda-setters as stat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do. Moreover, as China-Japan case demonstrates, environmental cooperation has provided opportunities for people to meet, to work together, and to know each other better. People-to-people ties are clearly crucial to the improvement of Sino-Japanese relations. Although their potential has not yet reveal in addition to state-to-state relations. It seems that people from both China and Japan increasingly support this view. In an opinion poll taken in 2009 (supported by China Daily and Genron NPO Japan) about 90 percent of

respondents both in China and Japan believed that civil exchanges were either "important" or "relatively important". In this context, the civil exchanges made in the area of environmental cooperation have proved extremely valuable in assisting greater mutual understanding. Contact with Japanese experts, visits to Japan, or simply understanding how Japan has responded to the environmental challenges that began to appear in the 1950s and 60s have allowed many Chinese to appreciate the magnitude of the Japanese achievement. They have come to admire the striking cleanliness of Japan, the emphasis on recycling and the environmentally friendly behaviour. Returning from a visit to Japan, China's environmental industry study group reported:

Japan's environmental governance is far ahead of ours, and in many respects, we should learn from them... Visiting Japan also gives us hope, since if the Japanese could devote decades to handling their serious industrial pollution problems and achieve such remarkable results, we should also have confidence to tackle the same challenges facing us today.

This is surely a positive image of Japan. Thus, indicating great potentials for cities surrounding the Yellow Sea to initiate and expand city diplomacy in much more positive direction.

제2세션 발제문

Local initiatives in Japan–China–Korea environment cooperation: The Frontier and the Challenges

Yukiko Fukagawa (Professor, School of Political Science & Economics, Waseda University)



Outline

- Geopolitics and JCK community
- Cooperation among JCK: TEMM since 1999
- Local initiatives in Japan
- Case of Kitakyushu and others
- The challenges
- Suggestions for the new approach











Environment cooperation among Bilateral: JK and CK

• Multi dialogue: EAS-EMM, JCK

- Bi dialogue: ASEAN, Iran, Mongolia, Singapore, Indonesia
- JK dialogue: Cooperation Treaty for Environment Conservation (1993) Projects: Air pollution, 3R system, Marine drifting wastes, Global cooperation (~2012)
- JC dialogue: Cooperation Treaty for Environment Conservation (1994) Projects: Acid rain, Air pollution, Cancer mechanism, Yellow sand, Eco-diversity $(\sim 2012))$



- Patterns: Gov. Ordinance cities (population over 5,000,000)/ Pluri counterparts, Key cities (2,000,000)/ Own counterpart
- Role in development assistance/ Extension of friendship relations
- Sectors: Environment, Agriculture, Education, Health, Infrastructure/Public services, 3R (Reduce, Reuse, Recycle)
- Tech. transfer/ Training/ Knowledge sharing













- "Compact city" for environment and aging community
- Light Rail Transit for reducing CO2, administrative costs, small business, Renewable energies/ Natural reproduction
- Per head CO2 emission: 1.3t (Matsuyama) vs. 2.2t (Utsunomiya)
- Per head commercial land: 890 m2 vs. 812 m2
- Administration cost per head: \4200 vs. \2400
- Linkage with retails, eco-tourism



The Challenges

- (1) Resource shortage: Budget, Retiring/ Restructured professionals, Volunteers
- (2) Subsidy based projects (No linkage with endogenous resources)
- (3) Mismatch in needs and seeds
- (4) Community (tax payers') supports
- (5) Information dissemination
- (6) Inconsistencies in exchange (including political disturbances)





제2세션 발제문

환황해시대의 충남 경제발전 전략

The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of Chungnam in the Era of Pan-Yellow Sea

이 승 훈

(세한대학교 총장)

1980년대 후반 한국의 대중국 교역이 확대됨에 따라,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교역에 유리한 '서해안'이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이와 더불어 남동권의 과밀화에 따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토의 균형개발 정책이 추진되면서, 서해 안은 경제개발의 핵심 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들어 이러한 서해안의 중요성은 '환(環)황해 경제권'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다. 황해를 인접하고 있는 한국·중국·일본을 축으로 한 동북아 경제권이 세계적인 경제권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에 전 세계의 시선이 쏠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잠재력은 풍부한 시장과 노동력 및 부존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 양질의 노동력과 기술력으로 무장한 한국, 그리고 고도의 기술과 자본을 자랑하는 일본의 저력에 기인한다. 특히, 한국과 중국의 경제교류가 확대되면서 황해 연안의 임해 공업벨트가 형성되고 전략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환황해권은 한국의 서해안 지역, 중국의 동해연안 지역, 그리고 일본의 큐슈 지역을 일컫는다. 환황해권은 인구가 2억 5,500만 명에 이르며, 지역내총생산 (GRDP: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규모가 약 1조 5천억 달러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경제권이다. 또한, 이 지역은 상호교류 및 협력을 통한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있으며, 글로벌 광역거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지하다시피, 인구가 14억 명에 육박하는 중국은 현재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 중이다. 중국의 최근 경제성장률은 연 평균 7%를 상회하고 있으며. 외휘보유고 및 교역규모가 각각 3조 8,900억 달러와 4조 1,600억 달러에 이른다. 1993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故 로버트 포겔(Robert W. Fogel) 前 시카고대학의 경제학과 교수에 따르면, 구매력평가(PPP: purchasing power parity) 기준 GDP로 볼 때 중국의 경제규모가 2040년 전 세계 GDP의 4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2000년 만해도 미국의 절반에 불과했던 중국이 2040년에는 미국(14%)을 체치고 압도적인 1위에 오른다는 뜻이다.

또한, 1억 3천만 명에 육박하는 인구와 1조 4천억 달러의 교역규모를 지닌 세계 3위의 일본도 확고한 경제적 위치를 지속할 전망이다. 2014년 현재 일본과 우리 나라와의 무역규모는 860억 달러로 중국(2,354억 달러)과 미국(1,156억 달러)에 이어 3번째로 큰 규모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양적으로 크게 팽창하고 있는 화황해 경제권에서는 현재 동남아시아 와의 교류 및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10개국으로 구성된 아세안경제공동체 (AEC: ASEAN(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Economic Community)에 하·중·일이 포함된 소위 'ASEAN+베세토(BESETO)' 경제블록은 EU와 NAFTA에 이어 세계 3대 경제블록으로 등장하고 있다. 'ASEAN+3' 국가연합은 인구가 21억 7천만 명에 이르며, GDP규모가 18조 달러에 달하는 거대 경제블록이다.

이 글의 목적은 이러한 환황해시대에 있어 충청남도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전략을 개관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충청남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국제적인 여건의 변화 및 전망에 대해 고찰하다. 그 후, 화황해시대를 맞이한 충남의 발전 전략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도출하고 토의해보기로 한다.

1. 충청남도 현황

충남의 총 인구는 2014년 12월말 기준 206만 명으로, 세대수는 약 87만 세대 이며 세대 당 인구수는 2.4 명이다. 충남은 중국의 관문항인 대련항 및 청도항 등과 최단거리에 입지하고 있어 대중국 교역 및 환황해권 교류의 거점지역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심화되는 가운데 국토 균형발전의 중심지 기능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충남은 수도권과의 산업경제, 세종시와의 행정, 그리고 대전시 와의 R&D 및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유기적인 연계성을 바탕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충남은 15개의 시·군(8개 시, 7개 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행정 구역 면적은 총 8,204㎢로 전국의 8.6%를 점유하고 있다. 충남에는 271개의 도서 (유인도 32, 무인도 239)가 포함되어 있으며, 해안선 연장은 1,062,2㎞이다.



〈충남의 지리적 위치〉

충청남도의 사회간접자본(SOC: Social Overhead Capital) 현황으로는 무엇 보다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경부·호남·서해안고속도로 및 경부·호남 KTX 등 국가 중추기간망이 충남과 전국을 연결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충남에는 국가산업단지 5개소 등 51개 산업단지와 개별입지(임해산업지역) 3개소가 입지해 있어 중국교역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포함된 95선석 중 67선석(71%)이 충남에 위치한 항만에서 운영되고 있다. 특히, 대산항은 연간 7천3백만 톤에 이르는 물량을 소화하고 있으며, 그 뒤를 당진항(7천만 톤/년)이 따르고 있다.

향후 충남의 SOC 전망도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데 있어 힘을 보태고 있다. 보령 -안면도 연육교가 2018년 준공예정(총연장 14.1km 5,400억 원)이며, 서해선 복선 전철도 2020년 준공예정(총연장 90km 3조8,000억 원)이기 때문이다. 서해선 복선철도는 충남 홍성에서 경기 화성을 연결하는 서해 축 국가 간선철도망 중 하나 이다. 남쪽으로는 장항선과 연결되어 익산에서 전라·호남선과 직결되고, 북쪽은 경기도 화성시 송산에 연결, 신안산선과 원시-소사-대곡 신설노선을 통해 경의선에 직결됨으로써 서해안 축 남북 종단 간선철도망을 구축하게 된다. 즉, 서해선 복선 철도는 서해안을 따라 이어지는 남북 종단 간선철도망인 것이다.

요컨대 중국 중심의 동북아 경제권이 급부상함으로써 환황해 경제권이 세계경제의 핵심으로 주목받는 소위 '21세기 신해양시대'가 도래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서해안이 한국 경제발전의 새로운 축으로 떠올랐고 그 중심에 충청남도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국의 경제성장 시기를 간단하게 3단계로 구분하면, 동남권 산업벨트-경부 산업벨트-서해안 신산업베트로 분류할 수 있다.







2. 여건 변화 및 전망

환황해권 시대 도래의 의미를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한·중·일 등 환황해 인접 국가들의 경제규모가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승하고 있다. 둘째, 환황해권 역내 무역이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승하고 있다. 한·중·일 역내 무역 비중은 1992년 14.2%에서 2013년 19.6%로 성장하고 있다. 셋째, 글로벌 경제의 소비지로서 환황해권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는 중국 경제의 성장과 그 역할이 세계의 생산거점에서 소비거점으로 전환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는 것이다.

2.1. 한·중·일 및 동남아시아

한·중·일은 세계인구의 22.3%, GDP의 19.6%, 교역량의 17.6%, 그리고 외환 보유액의 45.7%를 차지하면서 NAFTA와 EU에 이어 세계 3위의 경제권을 형성 하고 있다. 특히, 환황해권의 면적은 전 세계의 0.5%, 한·중·일 3국의 8%에 지나지 않으나 GDP는 세계의 4%, 한·중·일의 29.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먼저, 중국과의 관계를 살펴보자. 2015년 6월 1일 한·중 FTA가 정식으로 서명 되면서 한국과 중국 사이의 상호 교역 및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일대일로(一帶一路)의 주창 아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이 출범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더욱 증대 하고 있다. 최근, 중국경제는 '세계의 공장(가공무역 위주)'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이행하는 가운데 성장세의 둔화와 함께 경제구조의 근본적 변화가 진행되는 이른바 뉴노멀(New Normal, 新常態)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이는 물론 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충남경제의 수출 및 성장 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된다.

한편,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는 회복의 돌파구 찾기가 용이하지 않은 형국이다. 올해가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임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WTO 제소 등으로 인해 한일 관계는 여전히 경색 국면이다. 또한, '아베노믹스'에 의한 엔화 약세 기조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원화는 강세를 보임에 따라 한국 기업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고 있다. 이는 중국 관광객 감소 등 한국의 내수시장에도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2015년 말 출범 예정인 아세안경제공동체(AEC)의 영향력에도 주목 하여야 한다. 인구 6억3천만 명, GDP가 2조3천억 달러에 이르는 거대한 단일 소비 시장 및 생산기지가 탄생함에 따라 새로운 비즈니스 및 경제협력의 기회가 도래 하기 때문이다.

2.2. 충청남도

충남의 지역내총생산은 2013년 기준 98조 원으로 전국의 7.1%에 해당하고 있는데, 이 중 상당 부분이 북부권의 4개 시(천안, 아산, 서산, 당진)에 집중되어 있다. 한편, 1인당 GRDP는 4,200만 원으로 울산에 이어 전국 2위이나 소득의 40% 정도가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유출 비중은 2000년 이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명목GDP를 사용할 경우, 한국의 대외무역 의존도는 2013년에는 82.4%를, 2014년 에는 75.8%를 기록하고 있다. 충남의 무역의존도는 이 보다 훨씬 높은 113.25%를 기록하고 있는데, 반도체와 평판디스플레이 및 석유제품 등이 전체 수출의 52.2%를 구성하고 있다. 특히, 중국 수출비중은 2000년 9.1%에서 2014년에는 44.8%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충남의 대중국 수출규모도 2000년 15.5억 달러에서 2014년에는 290억 달러로 약 19배나 증가했다. 그러나 최근 중국경제가 뉴노멀 (New Normal, 新常態) 시대에 진입한 가운데 과거 10여 년간 높은 성장세를 지속 하였던 충남경제는 대중국 수출 감소 등으로 성장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점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난관은 충남과 중국과의 더욱 활발한 교류를 통해 극복될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서산 대산항-중국 용안(龍眼)항 간의 국제여객선 터미널이 완공되면 충남과 중국 사이의 인적 및 물적 교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산항과 용안항 사이의 거리는 339km로 양국 간의 최단거리이며, 국제여객선이 매주 3회 취항하면서 5시간 만에 왕래가 가능해져 중국인 관광객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이러한 기회를 계기로 충청남도가 화황해권 경제시대의 전진기지가 되어야 한다. 중국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대산항에 국제여객선 터미널이 완공되면, 양국 사이의 인적·물적 교류 확대를 통해 충남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 이다. 충남은 대산항 외에 당진항 및 보령신항을 3대 항만으로 선정하여 물류-산업-관광이 어우러진 종합 항만으로 개발할 예정이며, 하늘과 바다 및 육지를 연결하는 광역 교통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충남을 환황해시대 국제물류 항만의 거점지대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충남의 첨단산업은 더욱 더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다.

한편, 백제역사 유적지구가 유네스코에 등재됨에 따라 백제문화에 대한 관심이

74 환황해포럼 | 아시아 평화공동체를 향한 첫 걸음

고조되고 KTX 공주역 개통, 서해안 복선전철 착공, 그리고 2018년 안면도-보령 연육교가 준공되는 등 수도권 접근 향상으로 충청남도의 관광 수요도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정부는 서해안 밸리 국가계획으로 고부가가치 기업유치, 관광활성화, 그리고 황해권 물류 집적지 역할 수행 등을 주요 사업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 계획에 있어 충남도가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예를 들어, 3대 특화 항만 육성뿐만 아니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서해안 지역의 광역지자체와의 상호연계 협력방안 도출에도 힘써야 한다.

서해안의 잠재력과 보완점을 SWAT 분석을 통해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출처: 충청남도 정책기획관실 환황해 T/F팀).



〈SWOT 분석〉

3. 충남의 발전전략

화황해시대를 맞아 충청남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황해를 아시아의 물적·인적 교류허브로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3대 권역별 특성을 삼리 구체적인 협력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 G2로 부상하 중국과는 교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고, 일본과는 평화 공존을 위한 지방 차원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며, 2015년 말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에 따른 협력 강화에도 지혜를 모아야 한다.

또한, 황해를 아시아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다음의 4가지 측면에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먼저, 외교전략 측면에서는 중앙정부와 구별되는 지방 정부, 민간과 구분되는 공공부문으로서 충남의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하는 지방 외교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아시아 국가의 전문 인력확보 및 신속한 대응체제 마련으로 효과적인 전략수립 및 정책 추진이 이뤄져야 하며, 아시아 평화 공동체 구성 및 대중국 교류 전략을 수립하여 아시아의 공동번영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여야 한다. 둘째, 인프라 측면에서는 환황해권 연계를 위한 해상· 항공 기반 구축 및 국제교통망 확충으로 무역과 교류를 촉진하여야 하며, 세 번째 투자 및 통상 측면에서는 해외 홍보와 인센티브를 통하여 유수 외국기업이 충남에 투자하도록 유인하여야 한다. 마지막 관광마케팅 측면에서는 차별화되고 특화된 마케팅 전략을 마련하여 충남의 관광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권역별 특징을 살린 다 방면의 이러한 계획은 충청남도가 황해의 구심점으로 황해권 물류와 산업 네트워킹의 주요 거점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큰 그림을 완성하는데 필수적인 몇 가지 구체적인 전략을 개괄적 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3.1. 비교우위

기본적으로 나라간의 교역은 비교우위 논리에 토대를 두고 있다. 황환해시대를 맞아 충청남도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비교우위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추진하여 교역으로부터의 이득(gains from trade)을 극대화하여야 한다. 사실, 이는 한 나라의 경제가 기술진보(technological progress)에 의해 성장하는 것과 거의 동등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우선, 충청남도의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융복합화하여 비교우위를 제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충남도의 산업 및 과학기술의 잠재력을 활용하여 주력기반과 미래 성장산업을 선정하여, 연계와 융합을 통해 산업발전을 추진할 수 있다. 자동차 부품, 디스플레이, 화학 및 금속소재, 기계부품가공 등의 소재 및 부품산업의 부가 가치를 높이는 것이 한 가지 구체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지역산업기반을 융복합하여 미래 성장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도 전략적인 방안의 하나로 제시할 수 있다. 이 분야에서 각광받고 있는 산업으로는 이차전지, 청정에너지,

환황해 경제와 환경 협력 (77)

ICT융합, 라이프케어와 항산화 및 항노화 식품과 같은 기능성 식품 등을 꼽을 수 있다.

부가가치를 높여 비교우위를 제고할 수 있는 산업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생활 경공업 분야도 있다. 최근 디자인과 감성을 중시하는 고부가가치 생활경공업 분야의 수요가 확대될 전망이어서, 이것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중국과의 경쟁에서 의료분야 및 화장품에 이어 생활용품과 생활가구 등이 새로운 성장산업 으로 대두하고 있고. 중국의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고부가가가치 생활경공업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는 생활용품 디자인 박물관 및 생활디자인 파크를 조성하여 중국 및 동아시아 수요를 창출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사물, 이미지, 공간, 뉴미디어, 서비스와 연계한 디자인 온라인 콘텐츠 및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것도 주요 사업이 될 수 있으며, 서해안 경관 개선사업을 디자인 생태전원마을 조성사업과 연계하는 것도 계획해 볼 수 있다.

비교우위의 창출은 새로운 시장개척에서도 이뤄질 수 있다. 중국과의 FTA체결에 따른 대(對)중국 수출전략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개척을 위한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 및 아시아권과의 교류확대를 통한 타깃 산업을 선정하고,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개척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야 한다.

교역에 있어서의 비교우위는 산업단지를 전략적으로 육성함으로써도 가능하다. 중국 및 동아시아 교두보로서의 아산만권 '아시아 투자산업지역'의 조성을 대표적인 예로 꼽을 수 있다. 서산-천안·아산을 연계하는 아산만권은 한국의 국가 기간산업이 집적된 최대의 산업집적지로 전략적 육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충남의 지리적· 산업적 강점을 활용하여 아산만권을 중국 및 동아시아 진출입의 전진기지로 조성 하여, 중국 내수시장을 공략하고 중국자본 유치를 위한 산업단지별 특성화를 추진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화황해권 교통 물류 거점시설을 조성하여 비교우위를 높일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자원·원료 수송 중심의 항만을 복합물류 및 수요 창출형 항만으로 개발하여, 소위 '다기능 종합항'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또한, 항만과 항공을

연계하는 물류네트워크의 거점시설 조성도 매우 중요하다. 항만거점시설의 확충에 있어서는, 당진항과 대산항 등의 항만 부두시설 개량하여 교역은 물론 레저기능 까지 포함된 다기능, 다목적 복합시설을 조성하여야 한다. 또한 항만 배후단지 조성 및 국제항로 조성에 이르기까지 세밀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한편 공항거점 시설 조성에 있어서는, 서해공항(서산비행장 민항기 취항) 및 항공정비산업단지 (MRO) 조성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태안 비행장과 연계한 주요 항공부품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항공정비 인재를 양성하는 등 항공정비산업단지를 함께 조성할 필요가 있다.

3.2. 친환경에너지

환황해권 시대를 맞아 충청남도 발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또 다른 전략 으로는 친환경에너지 산업에 특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여기에는 서해안 친 환경에너지 산업벨트 조성, 수소밸리 구상 및 에너지 자립마을 구축 등이 포함된다.

서해안 친환경에너지 산업벨트는 서해안 화력발전 설비에 대한 CO₂ 저감과 차세대 에너지 산업의 육성을 통해 조성될 수 있다. 이 경우 전국 최대 화력발전 설비의 지속적인 확장에 대한 친환경적 개발 요구와 중부·서부발전 본사의 이전과 연계한 상생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종국적으로 충청남도 서해안에 집중된 화력발전 인프라를 자원화하여, 미래 기술개발에 대응한 친환경 에너지 산업벨트를 조성 하여야 한다.

인류역사상 에너지는 석탄 → 석유 → 가스 → 재생에너지(수소)로 전환되고 있다. 미래의 에너지로 수소가 주목받으면서, 소위 '에너지 혁명시대' 혹은 '미래 수소 경제시대'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수소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수소 밸리'의 조성에 충청남도가 뒤쳐질 수는 없다. 에너지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충청남도 지역 내 부생수소의 활용과 지역산업기반과 연계한 융합형 수소산업 육성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수소-(전력)저장-재생에너지를 연계한 분산전원 복합구상의 수립도 필요하다.

친환경에너지 사업은 기본적으로 절약의 미덕을 실천할 것을 요구한다.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함으로써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다름 아닌 친환경 에너지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확대하여 에너지 자립을 통한 소위 '희망에너지 마을'을 조성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희망 마을 만들기'와 '탄소중립마을 조성' 등의 사업과 연계하고, LED 보급, 그린빌리지, 그린홈 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 대해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구상하여야 한다.

3.3. 지역 대학활용

지역 대학연합 기술지주회사의 설립, 지식산업 혁신센터, 그리고 연구개발 특구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충청남도는 지역 대학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충남도는 그동안 제조업 중심의 산업거점으로 발전하여, 지역 내 R&D와의 연계가 부족해 새로운 창업과 산업육성에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창업과 기술사업화 및 기술교류 등을 통한 충남도의 차세대 성장 주자를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충남권 대학들을 연합 하여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여 산업정책과 기술개발 및 사업화모델을 한 틀에서 해결하는 사업을 구상해 볼 수 있다.

또한, 충남도의 미래 산업을 이끌 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첨단시설 및 인프라 확충에도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벤처 및 지식기반기업의 육성을 위한 충남권 대학연합 지식산업 혁신센터의 조성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천안·아산 융복합집적지 조성과 연계하여 벤처타운을 공동으로 조성하는 방안과 충남테크노파크 부지를 활용하여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여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충남권 대학들을 포함한 연구개발 특구를 조성하여, 신기술을 창출 하고 R&D 성과를 확산시키는 동시에 사업화도 촉진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과학 벨트 기능지구(천안, 청주, 세종) 사이의 연계를 통해 신소재 및 바이오산업의 생산시설 집적에 따른 기대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한다.

3.4. 위기관리

충청남도의 산업구조 특성은 수출중심의 대기업 의존형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는 글로벌 경기변동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의미한다. 특히, 경기변동에 민감한 주력 산업위주로 세계경제 변화에 따라 수요의 변동성이 심화되는 문제점을 내포 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충청남도 유관기관 사이의 공조를 통해 경제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시 운영하여야 한다. 물론 이 협의체에는 경제전문가가 포함 되어 경제동향을 예측하고 논의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경제 분야 위기 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단계별 지원정책을 유연하게 구사하여야 한다. 경제상황에 맞게 재정지원을 하는 등 단계별로 지원책을 펴야 효과도 높이고 비용도 절감 할 수 있다. 더불어 충남지역의 경제모니터링 기능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특정 산업과 특정 경제부문에 대한 경제지표를 설정하여 지역 밀착형 모니터링을 추진할 수 있다.

환황해 경제와 환경 협력 81

제2세션 발제문

충남 해양수산정책이 지향하는 새로운 환황해시대

Maritime and Fishery Policies of Chungnam towards the New Era of Pan-Yellow Sea

> **허 재 영**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슝	남 연인	<u> </u>	적연왕		
구분	삽교천	서산	대호	남포	석문	이원	홍보
위치	아산	서산	당진	보령	당진	태안	홍성, 보령
완공연도	1979	1995	1985	1997	1995	1992	2002
면적(km²)	51.1	146.0	76.5	19.1	37.4	13.5	16.4
방조제 길이(m)	3,360	7,686	7,800	7,170	10,556	2,981	2,838

11

해안선관리의 문제점

-- 간척과 방조제 건설로 인한 영향 자연 해안의 감소 및 해안선 침식, 어장 감소, 경관 훼손 등 해수위와 해수유동 변화 → 퇴적환경 변화 → 수질 및 생태계 변화 * 금강 하구역 조위차의 증가 : 범람에 취약 - 해안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 해안도로 및 발전소 등의 해안구조물 건설로 인한 해안선 및 자연경관, 해양생태계 등의 파괴 - 항만 건설

해안선 침식

해수위와 해수유동 변화 → 퇴적환경 변화

ᄎ나	10 10	다くさ	정하기	디미저
ъ Б		百丁工	건경피	문제점

충남서해안 담수호 현황

	구분 계	관리기관					
		지자체(시,군)	농어촌공사	현대건설			
계	937	711	225	1			
담수호	6	2	3	1			
저수지	222	: <u></u> :	222	-			
소류지	709	709	12	auri:			

 농업용수 수질기준 Ⅳ등급 (COD 8mg/L 이하) 수준 달성 2010년도 70% ⇒ 2020년도 100% 목표 호소 상류지역과 호소 내를 추진하는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오염원 저감으로 수질기준 저감대책 마련 									
	수계별	2010년 기준년도	2015년 중기목표	2020년 장기목표	ת וו				
	금 강		Ⅳ등급	Ⅳ등급					
	삽교호	비동급	∨ 등급	"	│ 종음, │ 약간종음 보통, │V약간나븸				
	서해	VI등급		"	·····································				
	안성		"	π					
					13				

	담수호 수질개선사업 추진현황					
	호소명	사업개요	사업비 (억원)	추진현황		
	삽교호 (5등급)	인공습지7 (174ha) 침강지1, 부댐1 취수유인 3개소 등	804	기본계획조사 '10년 완료 - 농식품부 기본계획 확정 및 세부설계 실시 지연 사업착수를 위해 중앙과 업무 혐의중		
	석문호 (6등급)	인공습지10(102ha) 침강지10, 부댐1 취입보 21개소 등	300	세부설계 '11년 완료 - 상류부 기초환경시설 미비 및 사업비 과다에 따른 농식품부 사업착수 시기 조절 중		
	간월호 (6등급)	준설 29,392천m ³ 인공습지5 (87ha) 개소 등	3,000	서산A지구 재정비 사업 일환으로 수질개선사업 추진 - 2010. 12월 착수 인공습지 조성 중		
	부남호 (6등급)	준설 15,340천m ³	1,409	태안기업도시 연계 준설 - 기업도시 추진지연		
-	14					

구분	해 안 선		도 서			
	연장(km)	비율(%)	합계	유인도	무인도	면적(km²)
합계	11,914.1	100	3,167	492	2,675	3,919.2
인천	954.5	8.0	155	40	115	689.6
경기	219.7	1.8	66	12	54	44.7
충남	986.4	8.3	265	41	224	277.9
전북	504.4	4.2	107	27	80	41.8
전남	5,540.0	46.5	1,965	279	1,686	1,806.9
경남	2,093.2	17.6	426	79	347	931.3
부산	313.9	2.6	41	3	38	37.9
을산	135.8	1.2	4	0	4	0.04
경북	428.0	3.6	43	3	40	72.9
강원	318.1	2.7	32	0	32	0.2
제주	419.9	3.5	63	8	55	15.6


해안선의 가치

- 해안선: 4,052 \$/ha (하구: 22,832 \$/ha)
- 산림 : 969 \$/ha [열대림: 2,007 \$/ha, 온대림: 302 \$/ha]
- 초지: 232 \$/ha

[2004-2005 국토해양백서]

전국 방조제/제방 : 총 2,075 km [육지해안선의 33%]

17



국가정책

•국내 해양환경 정책 강화 및 오염원 관리 •기후변화 적응체계 확립 •통합적 연안 · 해양 공간관리 등

타 시·도의 정책

•전북 · 전남: 연안습지 보전체계 구축 •경남 · 전북 : 복원 · 보전 중심 정책으로 전환

19

환황해 경제와 환경 협력 91



























제2세션 발제문

환황해시대와 충남의 對중국 전략

박 인 성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중국연구팀장)



환황해 경제와 환경 협력 99





• 충남의 현실과 고민 對중국 수출 비중이 44.8%(2014년) 이나, 최근 중국경제 가 '신상태(新常態, New Normal) 기조로 전변(转变)하면 서 對중국 중간재 수출 특수효과 급감-소멸 • 2001~2009 : 9.0%, 2010~2012: 3.8% · 2014년 ¼: 2.9%→ 2/4: 2.5%→ ¾: -8.7%→ 4/4: -14.9%→ 2015년 1/4: -8.1% 충남지역 방문 요우커 비중 0.4%(충청권 전체 1.5%) • 2014년 방한 '요우커(游客)'수 613만명 • 2007년 107만(16.6%)→ 2011년 222만(22.7%)→ 2014년 613만 (43.1%)• 출국 요우커수: 1억 900만명(2014) → 1억 2천만명(2015) 해외 소비액: 2014년 1,648억 달러(전년대비 28% 상승)→ 2015년 1,940억달러로 예상됨 2015-11-17 2. 전략대상 및 범위 설정 • 大国→ 역사 유구, 국토 광활 • 지역간 자연환경, 정주체계, 경제발전, 문화 수준 차이 大

- 발전 및 내수 잠재력: 동부→ 중부→ 서부→ 동북
- 연해지구 각 성(省): 동부→ 서부

2015-11-17

5

환황해 경제와 환경 협력 101





102 환황해포럼 | 아시아 평화공동체를 향한 첫 걸음











환황해 경제와 환경 협력 (105)



- [-1권역: 충남도와 20년 이상 자매결연 관계인 허베이성을 포함하는 징진지(京津冀)지구와 충남도내 15개 시,군과 자매 결연 및 우호협력 교류 파트너 市,縣이 가장 많은 산동성으로 구성되며, 총인구 약 2억 841만명, 면적 약 37.5만㎞. • 참고: 충청남도 면적 0.82만㎞, 남한면적 약 10만㎢임.
 - I-2권역: 랴오닝성(遼寧省)을 포함하는 동북3성지구로 총 인구 약 1억 976만명, 면적은 약 80.4만km².

I-3권역: 장쑤성(江蘇省)을 포함하는 장강삼각주지구로 총 인구 약 1억 5894만명, 면적 21.3만km 임.

2015-11-17

	-	권역별	기본현횡	-(201	4)	
구분	1인당 GRDP(달라)		1인당GRDP 전국순위*	면적 (만km)	인구규모 (만명)	비고
	중국전국	7,277	e	968.4	136782	
I - 1권역 (京津冀, 산동성)	河北省	6,240	16	19.0	7384	인구: 2억 841만명 면적: 37.5만㎢
	北京市	15,605	2	1.64	2151	
	天津市	16,424	1	1.19	1517	
	山東省	9,501	8	15.7	9789	
I -2권역 (동북3성)	遼寧省	10,175	7	14.8	4391	인구: 1억 976만명, 면적: 80.4만㎢
	吉林省	7,828	11	18.7	2752	
	黑龍江省	6,122	17	46.9	3833	
I -3권역 (장강삼각주)	江蘇省	12,777	4	10.3	7960	인구: 1억 5894만명 면적: 21.3만km
	上海市	15,191	3	0.62	2426	
	浙江省	11,393	5	10.4	5508	





• 국책사업화를 위한 프로그램화 구상 병행 추진

충남형 對중국 3농, 정책연수, 교육 관광사업 모델 개발

- 기 추진중인 공무원 해외연수와 해외교류자치단체 공무원 초청사 업 등을 정책연수관광부문 교류협력사업과 연계, 확대 추진
 - 3농혁신 및 환경생태 성공사례 체험 및 정책연수관광상품 개발
 - 생태환경체험 및 교육도장(서천), 한중해양교류사 박물관(태안)
 등→ 한-중 학생, 교사, 공무원 기업체 직원 교육연수프로그램과
 연결

 시·군에서 진행중인 친환경 고품질 농산품 사업, 로컬푸드-지역순 환식품-도농상생복합단지-학교급식지원 사업 등

2015-11-17

• 중점추진과제 • 한-중 지방간 인프라네트워크 구축-관리-운영 '충청중국포럼' 활성화 및 확대: 공무원→ 사회단체→ 기업 충남형 요우커(游客) 유치 및 마케팅 모델 개발 • '요우커(遊客)'에 대한 개인, 가족, 팀별 개별 관광객 대상별 유형화→지역특성반영→단계별대응전략구분수립,추 진 • 지역내 중국인 유학생 네트워크 조직관리 → 충남 관광지 홍 보와 장소마케팅과 연결→ 팸투어 및 효도관광 조직 실시 • 지역기반 중국전담여행사 합작건립-운영 ← 對중국 교류 파 트너 중국 지방정부와 2015-11-17 20 충남형 對중국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개발-운영 • 도립대학 특성화 발전 추진 → 중국-해양-관광분야 • 중국대학과 합작운영--우수 중국인유학생 유치 추진 • 충남공무원교육원 정책연수프로그램과 연계운영 • (가칭)충남중국아카데미 설립-운영 • 서울-청주공항-충청권 연계관광루트 개발→ 관광, 문화융 성전략 설계 → 한중교역 및 경협 사업과 연계

환황해 경제와 환경 협력 (109)



• 한-중-북 삼각교류사업 설계/추진 • 랴오닝성 단동(丹东)시와 지린성 훈춘(珲春)시: 對북한 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우회 거점으로 전략적 접근
 · 창지투(長春-吉林-圖們) 개발축과 일대일로(一带一路)
 동북축의 한반도 연결 구상 관련정책동향 파악 • 지방차원의 상향식 한-중-북 3각교류협력망 및 산업간 분업체계 구축전략 모색 • 충남형 對중국 및 對북한 교류협력모델 ←지방-현장-실천 중시 2015-11-17 24 感谢! **Thank you!**

2015-11-17











